APR 30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10 1982년 4월29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April 29, 1982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렴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의령 학살관련, 일부개각

노태우내무장관 취임

체육장관 이원경, 사망자 늘어날듯

(서울28일=연합)전두환 대통령은 28일 경찰관 주민학살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정화내무장관의 사표수리를 하고 후임에 노태우(50)체육장관을 임명하는등 일부 개각을 단행했다.

이웅희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신임체육장관에는 서울 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인 이원경(60)씨가 임명됐고 신임 서울시장에는 김성배(55) 충북도지사가 임명됐다.

박영수 전임 서울시장은 지난 4월8일 있은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이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했다.

신임 노태우내무장관은 예비역 육군대장으로 작년에 정무및 외무담당무임소장관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놨고, 지난3월 체육부장관직이 새로 생기면서 초대장관에 부임했었다.

이원경신임체육부장관은 문공부장관, 외무부차관을 지냈고 연합통신의 전신인 합동통신 회장 관계와 언론계의 요직을 두루 걸쳤다.

김성배신임 서울시장은 전 서울시부시장및 강원도지사를 지냈다.

의령주민학살사건의 피해자수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와 각 외신의 보도가 차이가 있으나 사망자가 계속 늘것으로 보인다.

◆신임 노태우장관

사건을 조사중인 특별수사반은 27일 중상자중의 하나였던 박선덕여인이 병원에서 절명함으로써 사망자 총계가 56명·부상36명이라는 반면 서울에서 보내지는 통신을 사망58명·부상36명으로 집계했으나 서울본사에서는 27일 현재 6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범인 우범곤(27)순경의 총탄에 부인과 두 아들을 잃은 구멍가게주인 신의도(52)씨는 "코카콜라 한병을 달라면서 들어온 우순경이 갑자기 총을 휘두르며 무차별난사 방안에 있던 가족이 즉사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사건당시를 회상했다.

신씨는 다리에 총탄을 맞고 병원에 입원중인데, 범인 우순경의 내연의 처도 부부의 총알제거를 위해 6시간의 수술을 받고 가료중이다.

우순경은 사건당일인 26일 퇴근후 동거여인과 말다툼끝에 술에 만취, 근무처인 의령경찰서 궁유지서로 돌아가 당직순경에게 대신 근무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무기고 열쇠를 꺼내 칼빈총 2정과 탄환및 수류탄7개를 갖고 나가 우체국과 불이 켜진 농가등에 침입, 주민에 무차별사격을 가했었다.

27일 새벽 5시30분경 우순경이 농가에 들어가 수류탄으로 자폭하기까지 무려 8시간동안 닥치는대로 총살극을 벌여 27일 현재 사망자만 60명 부상자가 35명에 이르다

◆파업첫날인 27일 토론토 의사들은 집회를 갖고 정부와 투쟁중인 의료협회의 진료비인상안을 적극 지지키로 했다.

온주 의사 파업 돌입

협상안되면 내주에도 3일간

수백건의 수술예약을 취소하면서 27,28양일간 파업을 단행한 온타리오주의사들은 극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전면파업을 강행할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은 내주인 5월3일부터 3일간 총파업한다고 밝혔었다.

토론토시내병원에서만 700건의 수술예약가운데 70%인 약500건이 취소된 가운데 대부분의 병원들은 긴급대책반을 강화, 응급환자들은 정상적으로 치료했다.

한편 27일 밤까지 진료비인상 협상을 벌인 주정부측과 의사대표들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결렬했다.

협상후 래리·그로스맨보건성장관은 "양측이 어떤 점에서 견해차를 갖고있는가는 파악했다. 이점이 종전보다 진전된 사항이다"고 말했다.

그로스맨장관을 28일 24명 온타리오의사들을 만나 다시 협상을 벌인다.

의사들은 [illegible]의 협상에 별기대를 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추정으로는 27,28양일간 파업에 온타리오주 의사 85%인 14,500명의 사들이 참가했다.

파업을 단행한 토론토지역의사 약1,500명은 블루어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합을 갖고 의사협회 토론토지부장 체프·이삭박사의 연설을 들었다.

총회후 이삭박사는 "협상의 관건은 바로 돈이지만 직업인으로서 의사의 긍지가 지나친 정부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회복하려는 상징적 투쟁이기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진료비를 84% 올려준다고 제시했으나 의사들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한국계 미군병사 부인쏘고 자살

(서울-UPI)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헌병이 그의 전처이며 동료인 미국인여자 헌병에게 총격을 가하고 자살했다고 23일 미군당국이 발표했다.

부산 552 미 헌병대 소속 문상용중사(25세)는 22일 그의 전처에게 45구경 권총 2발을 발사 그중 1발이 가슴을 관통시켰다.

문중사는 이어 인근 부대내 배차소에서 자신을 쏘아 숨졌다.

한편 총격을 당한 여자 헌병은 급히 부산대학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했다.

미군수사당국은 현재 이 사건을 수사중이다.

Without fear or favor
—The Korea Times—

함의현씨 1만달러 성금

88 올림픽후원회 기금으로

발족된 '88서울올림픽후원회의 함의현회장은 27일 올림픽후원회 기금으로 1만달러를 내놓았다.

함회장은 이날밤 교민단체장, 영사관관계자들을 자택으로 초청, 올림픽후원회의 발족동기와 그사업추진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재를 털어 거금 1만달러를 후원회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함회장은 "88년의 서울올림픽유치는 우리 한민족의 자랑이므로 우리 전교민들은 일치단결 적극지원하자"고 말했다.

자신이 기탁한 $1만을 비롯, 교민들의 성금은 올림픽후원회기금으로 예치하며 추후로 사용목적, 사업방향등을 구체화시키겠다고 함회장은 밝혔다.

올림픽후원회의 존속기간등에 대해 함회장은 "회장의 임기는 88년까지 6년간 3년씩으로 나누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범교민적인 총회를 열어 정관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회장댁에 모인 인사로는 김회수, 이영현 후원회두부회장을 비롯, 집행부전원과 이상훈 총영사를 비롯한 영사전원, 이병권 체육회장, 최승나외환은행장, 차선겸실협회장, 박희민목사, 원영신동우회장, 성용창노인회부회장, 김문량전한인회장등 교포인사및 언론인들이었다.

지난 24일의 미스코리아대회 사회자였던 후라이보이 곽규석씨도 참석, 이채로왔다.

함의현씨의 큰딸 승희양은 금년도 미스·코리아 캐나다 진으로 선발돼, 서울의 본선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다.

◆1만달러의 성금을 기탁하고 올림픽후원회 발족을 설명하는 함의현회장(중앙) 그 왼쪽에 이병권체육회장과 이상훈총영사가 보인다.

한인회관기금 $1만4천

미인대회 현장서, 즉석모금

토론토한인회관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한철)가 지난 24일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석상에서 벌인 한인회관 확장이전 모금운동은 당일 1만4천50달러의 모금실적을 올렸다.

이날 희사자및 금액은 아래와 같다.

◉2천달러-박인순
◉1천달러-장순채·함병섭·이영현·함의현
◉5백달러-성용창·조한철·김웅일·이병권·이훈모·장추신·이대환·고순복·강공선·윤재용
◉3백달러-장영채·김정운(전병길 합동)·나옥녀·전태균
◉2백달러-조영호·변의섭·전윤식
◉1백달러-오기환·홍승해·심태식·박대현·이영목·이인덕·한천석·임수철·이기훈·신영식·조기연·김효
◉50달러-이영규

社告

—판매가격 인상건—

본사는 5월3일자 신문부터 식품점에서 판매되는 한국일보 소매가격을 종전 30센트에서 40센트로 인상합니다.

독자께서는 제반 경비인상으로 이같은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시고 계속 많이 애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사는 당일 발행된 다음날 날자신문을 매일 각 식품점(미사사가 지역은 주3일)에 배달 합니다.

소매가격은 올랐지만 정기 구독료는 종전과 같은 월9달러, 연99달러, 영구구독500달러(독자가 원하는 때까지 발송함)입니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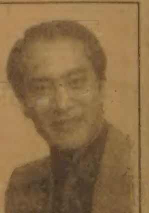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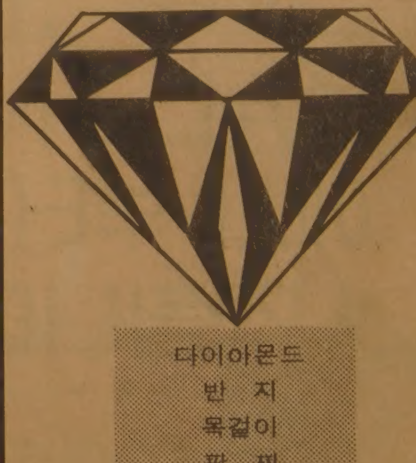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 은, 주식, Bonds, RRSP에 대한 문의는
361-3428(B), 447-1374(R) : 강 상 욱
"RRSP를 왜 남에게 관리시키는가? 자기돈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존 RRSP를 자기관리 RRSP로 옮기는데는 비용은 전혀 들지않으며, 유지관리비로 1년에 $100만내면 된다. 자기가 관리하면 투자설정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IATA
어디로모실까요?

모국방문특별요금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6004
R) 293-9970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주택, 대지, 아파트
◎가게, 상가, 사업체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 분
◎좋은 사업 계획에 투자나 동업 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하겠으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 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 2년
☆부동산업 종사 7년 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416) 497-8900 (B)
(416) 633-7892 (R)

채 준 성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단지 $9,900의 큰 사업체 : 숍핑센터안에 1,850S.F.의 좋은 설비를 갖춘 장난감과 운동구파는 가게. 같은 주인이 6년간 운영. 년매상 $120,000 이윤 40%이상. 가외수입 많음(자전거 수리등). 스탁 $30,000정도. 올 캐쉬 원함.
▲ 버라이어티스토아 : 최소의 자본을 ... 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아담하고 깨끗하며 ... 설비 갖추었음. 전체 지하실. 부인혼자 운영. 주매상 $2,000이상. $9,900 (급매가격임)
▲아주 좋은 투자 : 7년된 52가구의 벽돌 아파트. 요즈음에 거의 찾기 힘든 투자매에 5%이상의 리턴 있음(현재의 렌트는 싼편). 4층, 엘리베이터, 발코니, 15-1BR 26-2BR, 13-3BR, 대지: 1.21에이커, Simcoe, Ont.에 있음. 가격 : $1,350,000 다운페이 : $250,000 or Best Offer.
▲버라이어티 가게 : 더 많은 매상 가능 일요일 휴업, 주매상 $4,000이상. 좋은 장비, 전체지하실 $44,900 을 캐쉬 원함.
▲대지 : 전망 좋은 투자처, 36에이커 $1,890,000
▲터숍 : 주매상 $3,000이상. $59,900 OBO. 주인이 모게지 함.
▲715 Bloor St. W.: 3층 세미 뎃칩, 작은 사무실과 모든 가구 세원음. 좋은 투자겸 살림집. 작년 수입 $14,420 지출 $2,420. 좋은 모게지. ASK $129,000
▲중국식의 요리집: 멋있는 건물과 사업체 매매. 20대이상의 주차장, 술 라이센스, 한식이나 일식등 고급 스테이크 집으로 변형될 수 있음. 60석 + 20이상 완비. 좋은 매상. 발전성 많은 요처에 위치. ASK $395,000
★찾읍니다 : 좋은 매상의 가게나 타 사업체에 최대의 시세가격을 지불하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연락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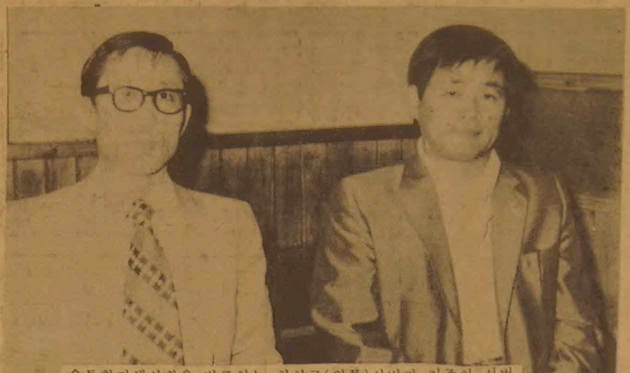
결혼 예물, 보석시계

다이아몬드
반 지
목걸이
팔 찌
귀걸이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국제태권연맹, 세계연맹과 통합 움직임

뱅쿠버의 감· 최사범밝혀, 이미 2차회합


◇통합진행상황을 발표하는 최창근(왼쪽)사범과 김종찬 사범.

한국 양대 태권도기구의 통합이 문턱에 다가섰다.

세계태권도연맹(총재: 김운용)과 국제태권도연맹(총재: 최홍희)은 뱅쿠버와 서울에서 양측대표들이 만나 통합에 필요한 이견을 조정해 양측에 만족할만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오는 5월중순 3차회담에서 최종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라고 국제연맹측은 밝혔다.

지난24일 에토비콕올림피엄 스타디엄에서 개최된 국제태권도연맹주최 국제태권도대회에 참석했던 김종찬, 최창근 국제연맹대표들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번 통합문제회담은 양측에서 절대지지를 받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합이 100% 달성될것인가하는 질문에 이들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통합을 염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할일은 1사람의 이탈자도 없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의 움직임은 6년전 몬트리얼올림픽(76년)때부터 양측대표들사이에 자주 거론됐으나 실현을 못보았다.

금년들어 통합움직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는 지난 1월9일 토론토에서 국제태권도연맹 제1차 이사회에서 였다. 국제연맹산하 대부분회원들의 통합염원이 상정되었으며 이때 최홍희총재도 찬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통합추진위원3명을 선정하고 전권을 이들에게 일임했다.

통합추진위원은 3자회담결과 서울세계연맹에 공식서한을 띄우기로 결의, 지난1월22일자로 김운용총재앞으로 서신을 발송했다. 서울측의 반응은 예상외로 좋았다. 3월17일자의 2차서신은 통합문제에 대한 양측대표의 회담건이었다. 세계연맹은 즉시 이를 수락, 지난4월7~8일 캐나다 뱅쿠버에서 1차회담을 가졌다.

세계연맹의 대표로는 강원식이사가 단독으로 참석했으나 문제내용이 워낙 중차대해서 강이사는 2차회담의 서울주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이때 다루기로 합의했다.

2차회담은 지난 4월19~20일 양일간 서울 국기원(세계태권도연맹총본부)에서 열려 통합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오고 가고 통합기구의 명칭, 임원, 기술, 시합, 도복과 같은 세부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졌다.

국제태권도연맹은 66년3월22일 서울에서 발족, 한국최초의 국제태권도기구가 되었으나 동연맹이 캐나다 토론토로 본부를 옮긴후 세계태권도연맹이 생겼다. 이태권도기구는 외국에 태권도보급을 주력, 현재 세계적으로 5천만명의 태권도 인구를 확보하고 있다.

한인장로교 박희민목사

토론토대학서 신학박사학위

◆박희민 목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박희민목사는 5월12일 저녁8시 토론토대학교 녹스 칼레지(Knox College)에서 목회 신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토론토대학교 안에는 5개 신학교(녹스, 임마누엘, 마이클, 위클리프, 트리니티)가 있으며 이들 은 공동으로 연합신학대학원(Toronto School of Theology)를 설치, 석사와 박사학위과정을 다루고 있다.

목회학박사과정은 77년부터 설치되어 매해 6~8명의 성공적인 목회자를 엄선, 입학을 허가하며 만 3년간의 과정 이수후 논문이 통과되면 학위가 수여된다.

박목사는 79년 4월에 다른 7명(천주교 신부2명, 앵그리칸2명, 연합교회 목사2명, 침례교 1명)과 함께 입학, 이중 박목사를 포함 2명만이 논문과 최종심사인 구두시험(Oral Test)에 합격, 5월12일 저녁 8시 동대학교 컨보케이션·홀(Convocation Hall)에서 학위수여식을 갖는다.

박목사의 학위논문제목은 「효과적인 이민목회(The Relevant Ministry to Korean Immigrants in Metro Toronto Area)」, 바움박사(Dr. Baum)가 지도교수였다.

74년 한인장로교회에서 동부, 새한교회가 갈라져 나간 와중속에서 부임한 박목사는 70명 교인으로 시작, 1년만에 단독교회건물을 구입하고 현재 교인 5백여명, 꽃년 예산 25만달러의 대교회로 성장시켰고 동교회는 T.V.선교방송제작운영및 성서신학원도 운영하고 있다.

소박 평범한 성격과 원만한 대인관계로 대내외적으로 건실한 목회자로 평가받고있는 박목사는 장로교신학대학, 숭전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졸업, 크락스빌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토론토부임전 박목사는 이디오피아 선교사및 뉴욕롱아일랜드 한인교회에 시무했다. 저서로는 「성숙에로의 시도」등 10권의 설교집및 수상집이 있다.

◆선련사에 봉안된 새불상

선련사, 불상 봉안식 성료

"석굴암 본전불 닮은 예술품"

한국불교회 선련사(주지 김삼우 스님)는 25일 상오11시 새로 모셔온 부처님 봉안식은 신도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했다.

새 불상을 서울의 불상전문제작소 법륜사의 조재효씨가 정성들여 만든것으로 석굴암 본전불을 닮았으며 길이 두자9치로 지금까지 토론토에 들여온 불상으로는 제일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25일 선련사에 도착한 이 불상은 종이와 플래스틱의 합성에 7번 금을 입혀 제작비만도 "상당히 비싸며 상호(불상의 표정)가 원만, 예술적 가치로도 자랑할 만하다"고 김삼우스님이 전했다.

이날 봉안식에서 선련사는 약4천달러의 헌금을 모았다.

NHL 하키 준결승 1차전

아일랜더스, 뱅쿠버 승리

세계하키는 캐나다 체코눌러

(뉴욕)패벡팀의 윌프·페이망의 말처럼 뉴욕·아일랜더즈가 2번씩이나 NHL하키 우승팀으로 스탠리·컵을 딴 것이 재수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27일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패벡·노르딕과 7천4선승제 준결승시리즈 1차전을 치른 아일랜더즈는 재빠른 공격과 풍부한 인적자원등 NHL 최고팀의 위력을 살려 4대1의 점수차로 이를 눌렀다.

아일랜더즈는 플레이·오프 초반에 파워플레이를 못살려 피즈버그, 레인저스등 약체팀에 고전했으나 이날은 2골을 따내는등 공격, 수비에서 노르딕을 압도했다.

한편 시카고에서 거행된 뱅쿠버와 시카고의 준결승은 수비팀 뱅쿠버가 2:1로 첫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헬싱키에서 계속중인 세계하키선수권대회에서 캐나다는 강호 체코를 4:2로 눌러 29일 스웨덴과의 경기만 승리하면 은메달은 확보된다.

◆캐나다대표팀의 웨인·그레츠키가 체코선수를 깔아눌렀다. 캐나다팀은 이게임의 승리로 은메달을 노리고 있다.

乳兒도 글읽을수 있다

生後4~6개월짜리들위한 리딩클래스 생겨

(LA지사발) 유아들은 걷거나 말하기 전에라도 글을 읽도록 가르칠수 있다.

베벌리힐스에 있는 교육자원봉사센터의 글로리아 클리포드여사는 4달부터 6달된 유아들은 누구나 글읽기를 배울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는 지난 15일 첫번째 베이비리딩클래스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8주간의 수업을 마친 4달에서 6개월된 유아 5명이 사각모를 쓰고 졸업장을 받았다.

클리포드여사는 그의 아들 벤자민(지금은 16달)이 4달되던해 독해력을 가르처 효과를 보고는 곧 베이비리딩클래스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아기들은, 말은 못해도 글자판 두개를 놓고 어떤 것이 아빠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곧바로 지적을 합니다」고 클리포드여사는 이들의 독해능력을 설명했다.

타고난才能 망친다.

이 교육법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베터베이비(Better Baby)연구소에서 처음 시도했다. 그 당시에는 정신박약아에게 이교육법을 시도했는데, 이아이들은 2-3살이 되면서 글을 읽기 시작했다.

클리포드여사가 인도하는 베이비 리딩클래스는 8주동안 부모와 유아에게 실시되며, 수강료는 64달러에 재료비가 25달러이다.

수업방법은 간단하다. 아기들에게 음식및 장난감, 친척명칭등 쉬운 낱말이 쓰여진 글자판을 여러번 반복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아기들은 그 글자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데 하루 5마디까지 암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재미있게 또 개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절대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이에대해 칼스테이트LA대학 교육학교수 콘스탄스 암스멘박사는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아동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수 있다」고 경고했다.

◆젖먹이 졸업생—베이비 리딩 코스를 마친 꼬마가 졸업장을 물어 뜯고있다. (UPI)

受講費64弗·교재비25弗에 8주간敎育시켜

하루 5마디 暗記가능, 强要는 절대禁物

결혼시즌 맞아 혼인풍년

한교회서 하루 5쌍결혼

날씨가 풀리면서 결혼시즌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주말 토론토 한인계 교회에서는 여러 쌍의 백년해로 출발식이 있었다.

특히 한인천주교회(주임 고종옥 신부)는 5쌍이 혼인식을 올려 결혼사태를 빚었으며, 그중 남매결혼도 특이한 일이었다.

24일(토) 최규한씨의 아들 양호군과 오정희양(부친 오정근), 또 딸 최상운양과 사위 이낙현군(부친 이기선)의 두쌍의 결혼을 비롯, 주상두씨의 아들 진호군과 김경희양(부친 김대성), 박소학씨 아들 상달군과 이옥순양(부친 이보선), 중국계 신랑과 김루시아양(김마리아씨 딸)의 5쌍의 결혼식이 한인성당에서 올려졌다.

한편 이날 한인장로교회(담임 박희민 목사)에서는 김인명군과 성명옥양이, 영락교회(담임 김재광 목사)에서는 이강운군과 박경순양이 각각 결혼식을 올렸다.

또한 금주말인 5월1일(토) 새한장로교회(담임 김상호 목사)에서 이기준씨의 장남 인호군과 구연승씨의 장녀 정애양이 결혼식을 거행한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그리운 고국은
KAL 기
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만이 통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만이 가지는 우리의 예절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는
우리들의 대한항공…

고풍 가득한 십장생 그림이 있는
B 747 점보기의
넓고 아늑한 분위기…
우리의 가곡이 흥겹게 흐르는 스테레오
씨스템과
우리 고유의 음식 써비스…
그리고 사뿐히 한복을 차려입은
우리 승무원들의 수줍은 미소…
그리운 고국은 KAL 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항공 TORONTO 영업소
390 BAY ST., SUITE 402•TORONTO
(416) 862-8250
(800) 268-9431(QUEBEC)

정성껏 봉사하는 겨레의 날개
大韓航空

지정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31-4607
신 세 계 여 행 사 536-2155
서 울 여 행 사 535-6004
제 일 여 행 사 535-2377

夫婦간의 對話방법

남편과 부인이 테이블에 앉아있다.
남편이 소금을 가르킨다.
부인은 남편의 그 제스처가 소금을 건네달라는 것임을 알지만, 그대로 앉아있다.
그리고 한두번이 아닌 그의 이같은 행동에 이번에는 그만 폭발하고만다.
『당신은 혀가 없어요? 왜 말로 못해요.나에게 말로 하면 안돼나요?』
『무슨 소리야. 정신 나갔어? 내가 원하는 건 소금뿐이라구』
『당신이 말로 하기전에는 안건네주겠어요』

우아하고 다정한 표현

『그럼 관두지』라며 남편은 부인앞으로 손을 뻗쳐 소금을 집어간다.
두사람은 분노의 침묵속에서 식사를 마친다.
이 두사람사이에 대화가 없었느냐하면 많이 있었다.
또 상대방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끝내 분노와 절망만을 안은채 식사를 마쳤다.
만약 이들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졌을때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야하는지 알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非難하지말고 對話시작, 상대방 경청
「당신이 어떻다」보다 「내가…」로 부드럽게
상대방 感情무시 자신감정노출 말라

부부는 그들만의 대화 패턴을 개발해야한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가 거절하거나 비웃지나 않을까?
그러나 감정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위험을 안고있는반면 그를 신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느낌을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지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할때에는 듣고 진실하게 이해해야한다.
심리학자및 정신과의사들이 권하는 부부간의 대화방법을 소개한다.
▲비난하지말고 대화를 시작하라.
만약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을 비난하지않고는 이야기를 꺼낼수가 없다면, 자신을 통제할수 있을때까지 문제의 제기를 연기하라.
이야기를 꺼낼때는『나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당혹하고있다. 우리 이 문제를 토의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대부분의 부부는 이같은 말로써 대화가 계속되게되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어떤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싶지않다면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걸수도 있다.
『웃점없는 토론을 하고 싶지 않은 당신을 이해한다. 실은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서로 문제에의 접근방법이 틀린다해도 서로의 느낌을 진실하게 주고받는다면, 좀더 명확하게 문제가 해결될것이다』
▲「당신이 어떻다」는 말보다는「내가…」로 시작하는말이 효과적인 대화방법이다.
이말은 자신의 감정노출에 있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것을 피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직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한채 자신의 감정을 노출시키지말라.
성인대화란 우아하고 다정한 표현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상대방을 경청하라.
그러나 이야기를 듣다보면, 더이상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없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는 수가 있다.
이런때에는『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되새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야기를 짜르라.
이 표현은『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과는 전혀 틀린 표현이다.
▲자신이 들은 이야기에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라.
이것은 오해를 없애기위해 필요하다.
예를 들어『나는 가고싶지않다. 휴가를 가려면 여러가지문제가 생긴다』고 부인이 말할때, 남편은『나와 같이 가고싶지 않은게로군』하고 말할수 있다.
이때에 귀찮다고 가만히 있으면 오해가 생긴다.
『아니요. 내말은 그게 아니에요. 가고싶지만 비용때문에…』라고 이유를 댄다면, 남편은『아, 그래?』라고 오해를 풀며 새로이 예산을 짤수있다.
서로가 녹음한 것을 함께 듣고있으면, 대화가 언쟁으로 비화되지않고 상대방의 뜻을 깊이 이해할수있게 된다. (LA지사발)

533-2361 구독신청은

美, GNP 11位·消費力1位
經濟협력開發기구, 23개 회원국조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81년도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1만1천3백60달러로 OECD의 23개회원국중 11위를 차지하지만, 소비력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는 1인당국민소득이 1만5천9백20달러로 OECD국가중 최고 를 기록했다.
유럽의 국가들은 수입은 많지만 세금및 사회보장금의 할인폭이 크고 또 생활비가 비싸 소비력이 미국보다 약하다.

◆점심거리—샌프란시스코 슈타인하트 수족관의 디렉터 닥터 존·맥코스커가 점박이상어를 쥐고 점심거리로 적합한지 살펴보고있다. 맥코스커에 의하면 요즘은 차츰 상어고기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 상어에 잡혀먹는 사람보다는 사람에게 잡혀먹는 상어의 수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고한다. (샌프란시스코)

織物협상 難航 한국—EEC間

(서울—) 한국과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관리들은 유럽이 수입할 한국산 직물의 할당액에 대한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협상은 EEC측이 한국의 대유럽직물수출량을 10%까지 줄이려고 하고 있으므로 한국측과의 의견대립을 가져온것.
한 한국관리는 6월에 새로운 협상이 필요할것 같다고 시사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전국총 직물수출량의 18.5%에 이르는 1억1천만달러 상당의 직물을 유럽에 수출했다.

교민동정

◆김더순(재캐나다체육회장 부인) 오는5월2일 7년만에 고국을 방문한다.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와 가게일로 너무 고생이 많아 이회장 강요로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하게 됐다 한다.
◆윤여경(온타리오정우. 시니어·컴퓨터·아날리스트)
한인 라이온즈클럽회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일부회원을 교체, 신입회원 17명을 받아들였다. 신입 라이온즈는 여석희, 이기천, 조병역, 장영채, 이동일, 최해경, 조병선, 강화연, 유영린, 이인용, 한광명, 심채환, 박영건, 정용주, 함효상, 최호영, 고광남 제씨이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새플라스틱 배터리開發
美3個大 공동연구로, "획기적 製品" 평가
엘트라社서 제작, 産業생산 5~10년은 소요

배터리산업의 판도를 재편시킬지도 모를 새로운 플라스틱배터리가 미국의 3개대학 공동연구 끝에 개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배터리는 기존제품과 비교해볼때 용적률이 3분의1, 무게는 10분의1에 불과한 반면 10배의 출력을 갖출수 있다.
이를 개발한 엘트라사는 그러나 이 제품의 산업생산까지는 향후 5–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그때가 되면 기존의 납–산 제품은 완전히 시장에서 축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와 햇, 열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문의처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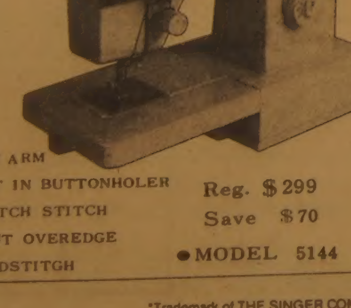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봄맞이대스페샬

쿠폰을 가져오면 $20 할인

쿠폰을 가져오면 $20 할인

★수리및 4 STEP TUNE–UP $29.95 ★무료강습
★헌재봉틀과 교환시 좋은혜택을 드립니다.



- FREE ARM
- BUILT IN BUTTONHOLER
- STRETCH STITCH
- SLANT OVEREDGE
- BLINDSTIT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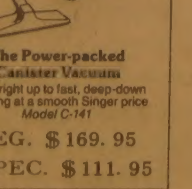
Reg. $299
Save $70
● MODEL 5144

컴퓨터식 재봉틀

Touch-Tronic' 2010 Memory Machine

• Touch-Tronic memory panel and stitch selection • Flip & Sew' panel • Universal pressure system • Twin needle capability •

Reg. $1349
Save $300



The Power-packed Canister Vacuum
Step right up to fast, deep-down cleaning at a smooth Singer price
Model C-141
REG. $169.95
SPEC. $111.95

Fashion Mate' Zig-Zag Machine

ONLY $128

• Front drop-in bobbin • Snap-on presser feet • Sews elastic and stretch fabrics • Three needle positions • Model 247

*Trademark of THE SINGER COMPANY
Authorized user: Singer Company of Canada Ltd.

SINGER APPROVED DEALER

SINGER SQUARE–ONE 쇼핑센타내
MISSISSAUGA (416) 277-0341 MR. 오

遊興업소 差等관리 課標신고 실적따라

國稅廳

국세청은 전국 14만6천여 유흥음식업소를 부가세과세표준의 현실화정도에 따라 성실, 준성실및 불성실사업자등 3개그룹으로 구분, 차등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로 마감하는 82년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1~3월분)에서 과표가 전기보다 16~17% 늘어나고 국세청이 납세자들과 협의하여 책정한 상담과표보다 많이 신고한 사업자를 성실사업자, 제1기예정신고가 전기과표보다 16~17%늘어나고 상담과표의 80%이상인 사업자를 준성실사업자, 그리고 앞의 2개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불성실사업자로 분류하여 성실신고자에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배제하고 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것이나 준성실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마감후 입회조사와 유통과정추적조사를 통해 과표를 현실화시켜 나가기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유흥음식업소들에 대해 입회조사, 유통과정추적조사등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상당수 사업자들의 과표가 실제매상액에 크게 미달하는 실정이어서 이같이 차등관리하기로 했는데 성실신고의 기준이 전기보다 16~17%증가를 전제로 하고있어 모든 유흥음식업소의 82년1기분 부가세과표는 전기보다 사실상 16~17%씩 상향조정된다.

부시, 오늘상오 來韓 懸案협의…親書휴대

조지·부시 美부통령내외가 劉彰順 국무총리 초청으로 25일상오10시5분 美공군특별기便으로 來韓, 정부 지도자들과 韓美간의 우호협력증진방안등 공동관심사에대해 논의한다.

제5공화국 출범이후 訪韓하는 미국정부의 最高位級인사인 부시부통령은 26일 청와대로 全斗煥 대통령을 예방, 한반도의긴장완화를 위한 협력방안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요담하며 미국의 對韓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레이건 美 대통령의 親書를 全대통령에게 전달할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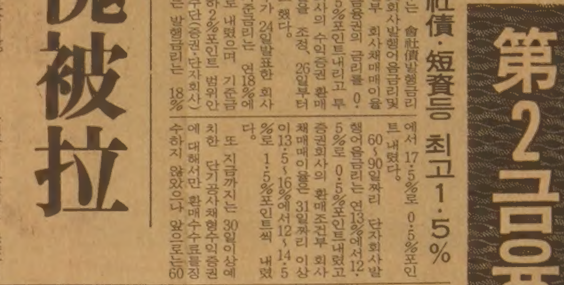
부시부통령은 또 劉총리와 회담을갖고 韓美간의 경제협력증진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경제안보적인 측면에서 양국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소식통은 24일 韓美간에는 현재 특별한 懸案이 없는만큼 부시부통령이 어떤 새로운 제안이나 이니셔티브를 취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며, 다만 지난해 韓美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이행을 더욱 확대·심화 하고 駐韓美軍의 계속적인 한반도평화의 정착을 위한 미국의 결의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韓·日經協등 논의 부시-스즈끼 會談

【東京24日=宋孝彬특파원】 조지·부시 美부통령은 24일 상오10시부터 1시간30분동안 일본 수상관저에서 스즈끼(鈴木)수상을 만나 韓日 경제협력 문제및 무역마찰등 국제정세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스즈끼수상은 이자리에서 『현안문제인 韓日 경제협력 문제를 거론하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협력하기위해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최대한으로 노력할 생각』이라 전제하고 25일 한국을 방문하는 부시 美 부통령에게 난항하는 韓日간 교섭에 관해 측면지원을요청했다. 이에대해 부시부통령은 스즈끼수상의생각을 全斗煥 대통령에게 전달, 양국간 의사소통에 협력할것을 약속했다.



◇스즈끼 일본수상㊧이 24일 부시 미국부통령을 맞아 회담을 시작하고있는 모습。 【東京24日 AP電=聯合】

英艦、조지아島접근 아르헨과 戰雲高潮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24日UPI=聯合】 포클랜드위기의 평화적해결노력이 실패할 조짐을 보이고 완전전시체제에 돌입한 영국기동함대의 선봉대가 24일 현재 사우드조지아도 인근87㎞ 수역까지 접근한 것으로 보도되는등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일전 가능성은 시시각각 높아지고있다.

영국외무성은 아르헨티나주재 영국인들에게 영국기동함대가 포클랜드해역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가능한한 빨리 아르헨티나를 떠나도록 촉구, 양국간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의 모든 신문들은 일제히 포클랜드분쟁의 즉각적인 평화적 해결전망이 거의 전무상태라면서 영국의 군사조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으며 가디언紙는 영국정부가 26일을 무력단행의 시한으로 잡고있다고전했다.

데일리·텔리그래프紙 또한 영국구축함대가 현재 사우드조지아도 연안에 포진하고있고 한편주력함대는 이번주말께포클랜드인근수역까지 접근할것이라면서 이들 함대가 대결태세를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이와함께 부에노스 아이레스주재 무기 거래소식통들은 아르헨티나가 긴급 무기 구매에 나섰으며 이미 이스라엘로부터 다량의탄약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8만명 職業훈련생 産災보상대상 追加

노동부는 24일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지금까지 재해보호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연7만여명의 직업훈련생도 각종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훈련생이 재해를 입어 사망했을때는 최저 6백만원의 유족보상금과 54만원의 장례비를 지급 받으며 요양을 받아야할때는 하루 3천4백원씩의 요양보상및 장해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직업훈련원생들의 재해보상금은 일반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상금과 같은것으로 동일한 직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초입금을 기준, 재해보상금을 산출한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현재 85개소 공공직업훈련원과 2백89개 사내직업훈련원에서 연 8만여명이 직업 훈련을 받고있다.

日海上보안부발표 어제새벽 北傀西쪽 海域서

日漁船5척 北傀被拉

【東京24日=聯合】 서해에서 조업중이던 일본의 저인망어선 5척이 24일 새벽 북괴경비정에 의해 나포된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후쿠오까해상 보안부에 의하면 후쿠오까소재의 한 어업회사가 저인망어선5척이 북한서쪽해역에서 북괴 것으로 보이는 선박에 24일 새벽 나포됐다고 보고해왔다.

동해상보안부는 이들 어선이 북괴의 이른바 50해리 군사경계선 구역에서 나포된것으로 보고 확인을 서두르고있다.

戶主制度 폐지검토 民正黨

民正黨은 남녀차별 해소와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民法上의 戶主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黨의 한관계자는 24일 『정부도 친족상속법규에있어 남성우대규정이 男兒선호경향을 부채질하여 인구억제정책에 장애가된다고 판단, 관계법규의 개정을 검토중인것으로 안다』면서 남녀평등과 인구억제를위해선 民法상의 戶主制철폐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農水産物 流通혁신

최고9단계 중간暴利봉쇄 새마을조직·出荷조합육성

서울, 부산등 대도시의 시민들이 배추·사과·생선등 농수산물을 싱싱하고 값싸게 사먹을수 있게되고 생산자인 농민들쪽에서는 제값을받고 물건을 팔수있는 획기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이 세워졌다. 24일 내무부는 현재 농수산물의 품종에따라 5~9단계의 불필요하고 복잡한 유통과정을거쳐 도시의 소비자에게 공급돼 소비자가격이 생산지가격보다 최고 2배이상비쌀뿐만아니라 품질이 상하는 폐단등을 막기위한 「농촌생산품및생필품 유통구조개선방안」을 확정했다. 【蔡琪哲기자】

5년간 6千億투입

계획에따르면 오는 86년까지 5년동안 연차적으로 모두 6천5백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통구조를 최대한으로 줄여, 농산물생산지의 공동출하조직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되도록 함으로써 중간상인의 폭리를막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함께 보호 하겠다는것.

내무부는 이같은 유통구조 개선작업을 새마을운동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농수산물의 유통구조(81년 내무부조사)를 보면 생산자―수집상―반출상―도매시장―중매업자―도매상―중간도매상―소매상을 거쳐 도시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있다.

이때문에 불필요한 중간마진이붙어 무우의경우 생산자가 1kg당20원에판것이 소비자는 57원에 사먹어 2.8배나높은 소비자가격이 형성되며 양파가 1.9배, 감귤이 2.3배나 비싼가격에 거래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와생산자가 모두손해를 보고있는 것을뜻한다.

내무부는 이같은 원인이 산지의 유통기능과 소비지의 시장기능이 모두미약하고 유통산업에대한 투자가 빈약하며 시세변동등 생산지의 시장정보가 어둡다는데 있다고 분석, 이번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무부 개선책을보면, 생산지에 공동출하조직을 형성, 소비지에 직접 공급하거나 도매시장과 소매점만 거치고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출하체계로 바꾸는 공동출하조직육성방안과 산지에 경매장과저장시설을 대폭확충, 중간상인이 개입할 소지를 없애는 산지 경매장개설, 대량소비처에서 생산품을 직접구입하는 계약재배확대방안등을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유통정보의 신속한전달을 위해 생산출하조직에서 이용해 마을공동출하조직에서 서울등 대도시 상품가격을 매일 통보받을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내무부는 공동출하조직은 86년까지 6백개소로 늘리고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며 농수산물집배센터도 현행 도매시장과는 별도로 11개소를 설치, 산지직거래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할방침이다.

地下鐵복구등 視察 全대통령、어제새벽 靑果시장도

全斗煥 대통령은 24일 새벽 서울峴底洞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복구현장과 중앙청과물시장을 약 1시간동안 시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새벽5시50분 峴底洞사고현장에 들러 현장책임자로부터 사고피해 복구진척상황을 보고받고 복구현장을 돌아보며 작업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龍山에 있는 중앙청과물시장을 찾아 양배추와 양파도매상회등을 둘러보고 야채와 과일의 需給상황과 판매및 가격동향등을 살폈다.

全대통령은 청과물시장을떠나 元曉路를 통과하다가 마침 신경수군등 南汀국민학교의 「애향어린이 청소회」소속 어린이 16명이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을보고 차에서 내려 어린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들의 선행을 치하했다.

第2금융권 金利인하

會社債·短資등 최고1.5%

재무부는 會社債발행금리및 短資회사발행어음금리및 還買조건부 회사채매매이율등 제2금융권의 금리를 0.5~1.5%포인트내리고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수수료율을 조정,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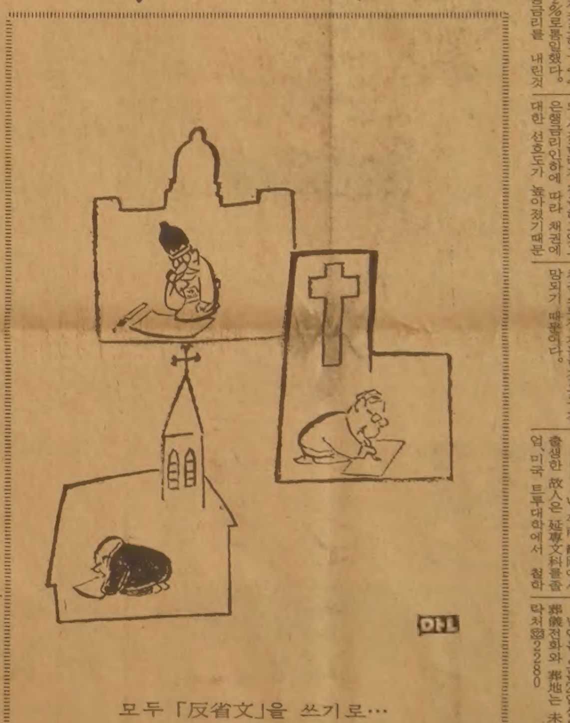
재무부가 24일발표한 회사채발행기준금리는 연18%에서 17%로 내렸으며 기준금리의 상하2%포인트 범위안에서 인수단(증권·단자회사)이 결정하는 발행금리는 18%에서 17.5%로 0.5%포인트 내렸다.

60~90일짜리 단자회사발행어음금리는 연13%에서12.5%로 0.5%포인트내렸고 증권회사의 환매조건부 회사채매매이율은 31일짜리 이상이 13.5~16%에서 12~14.5%로 1.5%포인트씩 내렸다.

또 지금까지는 30일이상예치한 단기공사채형수익증권에 대해서만 환매수수료를징수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60일이상 예치한것에한해 수수료징수를 면제키로하고 수수료율을 0.2%로통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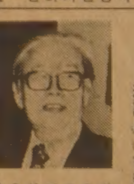
회사채발행금리를 내린것은 최근들의 회사채발행금리와 시장금리가 접근하고있고 은행금리인하에 따라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때문에 발행금리를 내리더라도 채권소화가 가능할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社会漫評



모두 「反省文」을 쓰기로…

8選議員…前新民黨 黨首代行도 鄭一亨박사 別世



前新民黨당수권한대행과부총재를지낸 鄭一亨박사가 23일 밤11시10분 서울西大門區 [illegible]元洞43의4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사진〉 향년 78세.

鄭박사는 지난3월1일 持病인 고혈압으로 서울대학병원에 入院,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날밤퇴원, 자택에서 殞命했다.

1904년 平南 龍岡에서 출생한 故人은 延專文科를졸업, 미국 드루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정부수립초기에는 유엔대표단으로 외교활동을 하다가 제2대국회부터 9대까지 서울中區(9代는 鍾路·中區)에서 연속 8選으로 당선, 우리나라 議政史上 最多選 의원의 기록을 남겼다.

4·19이후 民主黨정부에서 외무장관을지냈고 維新體制철폐를 주장했던 야당정치인으로 77년3월 소위 明洞사건으로 大法院에서 有罪판결을받아 의원직을 상실한후 政界에서 은퇴했다.

遺族으로 미망인 李兌榮여사(가정법률상담소장·68)와 아들 鄭大哲씨(前의원)등 1남3녀가있다.

발인은 오는27일상오10시. 葬儀전화와 葬地는 未定. 연락처 ☎2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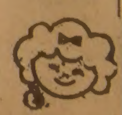
全대통령 弔花보내

全斗煥 대통령은 24일하오 故鄭一亨박사빈소에 李範錫청와대비서실장을 보내 弔花를 전달하고 조의를표했다.

전염병對策 철저히

【釜山】 劉彰順국무총리는 24일 慶南지역 안보보고회에 참석한뒤 慶南道政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염병이 보통南쪽 해안선에서 발생, 北上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앞두고 北傀가 전염병까지도 트집을 잡을우려가 있는만큼 전염병예방대책에 대해서도 특히 신경을써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地平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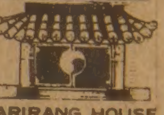


都市살이는 편하다―고 모두가 생각한다. 사실이 그렇지는 모르지만, 도시살이의 편함은 모래위의 집처럼 취약한데가 있다. 만일 수도가 하루만 안나오면, 잠시나마 전기가 끊어지면, 교통이 막히면, 도시살이의 편익을 보장했던 모든것이 苦役거리로 변한다. ▼78년인가, 12월어느 주말에, 서울江南 S고층아파트의 전기가 11시간 끊긴 일이 있었다. 정전과 함께 승강기가 서고, 난방이 꺼졌다. 1시간뒤에는 한데보다 더한 추위가 엄습해 왔다. 양수펌프도 멎었다. 2시간이 지나자, 수도가 말랐다. 화장실은 악취를 뿜고, 식수마저 없었다. 떨며 지샌 일요일 아침, 입주자들은 빵으로 아침을때우느라, 12층을 걸어서 오르내려야 했다. ▼사고의 원인은 아파트 옥내의 전기배선 잘못이었다. 그 원인을 찾지 못해, 시간을 끌고, 1차수리뒤에 사고가 거듭나, 4백여세대 1천7백여주민의 주말을 망친 것. 『11시간이 열하루 같더란』고, 어떤 입주자는 두고 두고 술회한다. 그의 체험은 도시살이의 취약성을 실감케 한다. 한참 보이는 잘못으로 도시기능의 한구석이 삐걱하면, 도시살이는 고역의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서울 지하철의 峴底洞사고도, 말하자면 도시살이의 규모론 「취약성 實驗」이나 같다. 사고후 국회內務委 답변에서, 서울시 당국자는 『2배리가 넘는 지하철 공사중 불과 50m의 사고일을 강조했다지만, 「불과 50m의 사고」로 무악재 너머 사는 서울시민 1백만명이 고초를 겪는다. 보름이 넘도록 「불과 50m」의 복구작업은 겨우 50%를 마쳤으니, 「實驗」이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른다(한국일보 24일字 10면). ▼그래도 전기·수도·전화가 다시 트인 지금, 인근 시민들의 고초가 전갑지는 않다. 하지만 간선이 막힌 교통혼잡의 여파는 城山大路―新村―弘濟洞―孝子洞등 상당히 넓게 번져 있다. 그로해서 교통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있음은 물론, 현장의 가까운 주민들은 숫제 차편이 막히고, 장사가 안되니, 살림자체를 위협받는다. 「불과 50m」라고 하지만, 도시의 「50m」는 다른곳의 「50m」와는 다르다. ▼그렇다고 위험한 복구작업을 마냥 독촉할 수만은 없다. 날림공사에 날림복구가 겹치면 웃음거리다. 그보다, 사고의 현장수습 못지 않게 궁금한 것은, 서울시가 말하던 지하철 全공사구간의 안전진단 결과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짐작한다면, 지하철 공사의 「安全白書」라도 넘지하지 않나 싶다. 그렇지 않으면, 달포뒤 장마철은 매우 불안한 계절이 될지도 모른다. 인명피해만이 아니라, 「불과 5m」의 사고가 치명적일수도 있는, 도시살이의 취약성을 시행정은 잊지 말기 바란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533-2361

Y-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부친보상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교민증가 1만명 서명운동

경애하는 5만 교포여러분! 지금 총연합회가 실시하고 있는 1만명 서명운동은 일석수조의 이익을 가져오는 범교포적인 운동입니다. 한국은 많은이민을내어보내니 좋고, 캐나다는 선택적으로 우수한 이민을 받게되니 좋고, 교포사회는 교포의 증가로 모든 단체와 기업이 활기를 띠게되니 환영할 일입니다.

비록 캐나다는 실업율이 높다 할지라도 국가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매년 13만명 이상의 이민을 해외에서 받아드립니다. 이와같은 높은 숫자는 우리 앞에 열린 문입니다. 만명서명운동은 이 열린문을 한-카 양국의 이익과 교포사회의 번영을 위하여 펴나가는 애족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마련된 지면에 한 분도 빠짐없이 서명하여 보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캐나다총연합회 드림 —

보낼곳 : 각 지역 한인회장
또는 Dr. KI SONG OH
P. O. Box 584, Cote St. Luc, Montreal, P. Q. H4N 2Z2

성 명	주 소	서 명

佛、테러 掃蕩令

미테랑、高位작전회의서

列車폭파위협 恐怖속 國境통제등 경비강화

【파리22日UPI=聯合】64명의사상자를 낸 22일의 파리중심지 폭발사고에 이어 23일 국제적암살자 카를로스 일당들의 열차폭발위협으로 프랑스내에서 테러공포가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고위급 작전회의를 개최한후 정치테러소탕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을 명령했다。

이날 엘리제宮에서 열린 『작전회의』가 끝난후 가스통·드페즈內相은 프랑스정부가 앞으로 테러소탕을 위해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전통적인 망명자환영정책을 재고하고 ▲비자신청을 정밀검사하고 ▲駐佛외국대사관과 해외주재 프랑스대사관의 경비를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드페즈내상은 또 내무성이 이미 프랑스에 체류하는 정치적 망명자의 지위를 재검토할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망명자들에게 신중히 처신하라는 경고를 되풀이했다。

◇포群島 방문한 아르헨大統領 레오폴도·갈티에리 아르헨티나 대통령(右)이 22일 포클랜드群島주둔 아르헨軍을 시찰, 병사들과 어울려 얘기를 나누고있다。아르헨티나의 국가원수가 이섬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코모도로·리바다비아 (포클랜드군도) 23日AP電送=聯合】

日·蘇원탁회의 日側 領土반환요구 蘇聯代表들 첫認定

【東京23日發(OANA)=聯合】東京에서 열리고있는 일본―소련원탁회의에 참석한 蘇代表들은 22일 양국간의 민간레벨회의사상 처음으로 일본이 영토반환을 요구하고있음을 인정했다고 회의소식통들이 23일 전했다。

中共 修正憲法 復活되면 鄧小平 國家主席 확실시

【北京23日AP=聯合】中共수정헌법에서 다시 부활될것으로 전해진 국가주석직은 中共실권자 鄧小平이 맡을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北京의 외교소식통들이 23일 말했다。

아직 수정헌법의 全文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鄧小平은 지난54년 헌법이 『포괄적』이라고 평함으로써 신헌법이 54년 헌법을 모델로 삼고있음을 시사했으며 그럴 경우 국가주석직은 명목상의 지위가 아니라 黨·政에 걸쳐 실권을 부여받을것으로 보인다。

이、오늘 시나이 완전返還

15년만에 이집트旗 國境線확정은 3國회담서

【카이로·텔아비브23日UPI=聯合】이스라엘은 25일을 기해 지난67년 제3차中東戰 발발이래 점령해온 中東의전략요충 시나이반도를 15년만에 이집트에 완전히 반환한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환을 이틀앞둔 23일 시나이정착촌 주민에대한 철수작업을 완료하고 이스라엘軍의 철수를 개시함으로써 역사적인 시나이반환을위한 마지막 마무리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25일을 국경일로선포한 이집트는 앞서 시나이南部와北部에 실지회복을기념하는 횃불走者를 파견한데 이어 카이로등 주요도시에서의 축제를 준비하면서 거국적인 기

22일 카이로를 출발한 「平和의 횃불」은 15년만에 처음으로 이집트국기가 게양될 시간에 맞추어 가파와 샤름엘셰이크에 도착할예정이다。

核、落胎행위같은것 訪日중 테레사警告

○…東京을 방문중인 노벨평화상수상자 테레사수녀는 『핵무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죽이는 낙태행위와 마찬가지로 전세계 인류에 대한 살해도구』라고 핵무기의 위협성을 경고했다。

테레사수녀는 지난22일 東京 [illegible]에서 열린 「생명의 존엄」을 주제로한 국제회의 연설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세계에 있는 핵병기의 존재는 각국간에 공포와 불신을 생기게한다』는 내용의 反核메시지를 낭독했다。

美유엔大使、親아르헨 발언…口舌數

포클랜드群島 점령 武力侵攻 아니다

○…미국의 駐유엔大使 진 커크패트릭여사가 포클랜드 사태에 관해 중대한 실언을 한통에 뒤늦게 구설수。

그녀는 미국 CBS 방송의 질문에 「아르헨티나는 과거 2백년동안 이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왔고、또영국은 실질적으로 이군도를 영유해왔다。만약 아르헨이 이군도를 자기 영토로 삼을 경우 거기에 군대를 파병한 것은 무력침공이 아니다」라고 답변한것。

커크패트릭대사는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군도를 점령한바로 다음날 駐美아르헨대사관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었는데、미국이 아르헨의 철수를 요청하는 유엔결의안에 찬성한것과 그녀의만찬참석이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는 것。

뉴욕·타임즈紙는 커크패트릭여사의 직책으로보나 발언의 의미로보아 결코 3류의 일축할수없다고지적、포클랜드군도가 누구의 영토이든간에 관계없이 현상유지에만 급급하는 미국정부의 무원칙한 외교정책을 꼬집었다。

◇진·커크패트릭 美유엔대사。

波首相 헝가리방문 카다르와 同病相憐

○…보이체후·야루젤스키 폴란드수상은 21일 헝가리를 방문、요나스·카다르 헝가리공산당서기장과 요담했다。

야루젤스키의 헝가리방문은 작년12월 폴란드에 계엄령이 선포된이래 소련、東獨、체코에 이어 4번째 외유。

헝가리는 지난56년 자유화운동을 추진하다가 소련의무력개입으로 불발로 끝난 쓰라린체험을 가지고있어 야루젤스키와 카다르간의 회담은 비슷한 처지에있는 소련위성국의 두 지도자가 만난것。카다르는 56년 소련탱크가 헝가리수도 부다페스트를 유린했을때 매국노라는 지탄을받았다。

外信로비

日本版 「양령대군」 히로히또 親조카 평민허가 신청 皇族생활에 염증…굴레벗고 싶어

○…히로히또(裕仁) 일본 天皇의 친조카인 미까사노미야·도모히또(36·三笠宮寬仁)가 평민허가신청을 냈다。

36세인 도모히또公子는 구레나룻과 턱수염을 특색있게 기르고 있어 「수염公子」로 불리고 있는데 그는 황족을 이탈하려는 이유로 『마음껏 사회에 봉사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모히또公子는 히로히또天皇의 친동생인 미까사노미야·다까히또(崇仁)의 長男으로 왕위계승권 7번째의 지위에 있다。일본에서 왕위계승권자가 평민허가신청을 낸것은 도모히또公子가 처음。

濠신문재벌 머도크 美紙인수놓고 競合

【東京=宋孝彬특파원】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신문재벌 루퍼트·머도크씨는 최근 또다시 미국의 데일리·뉴스紙 인수문제를 둘러싸고 텍사스출신 자본가 조·앨브리튼씨와 경합했다。

미국 최대의 일반교양지인 데일리·뉴스 노조측은 앨브리튼씨와 매매협상이 진행중이었으나 머도크씨가 인수할의사를 비쳐 앨브리튼씨와의 협상은 일단연기되었다고 밝혔다。

25일을 최종협상일로 잡은 앨브리튼씨는 예상수익금의 20%를 고용자에게 분배하는 조건을 내세우고있는데 머도크씨는 인수할 의사만 비쳤을뿐 아직 구체적인 협상조건은 밝히지 않고있다。

한편 시카고에 본부를 둔 데일리·뉴스의 모회사 트리뷴社는 머도크씨의 인수제의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앨브리튼씨와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폐간도 각오하고 있음을 비쳤다。

◇首相의 발레? 뒤르도 캐나다수상이 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밴쿠버행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들어가면서 발끝으로 몸을 돌리는 댄스(피루에트)동작을 해보이고있다。뒤르도수상은 이에앞서 캐나다를 방문한 엘리자베드 영국여왕앞에서도 이 댄스동작을 보여 수행원들을 웃겼다。【AP】

蘇 TU16폭격기 東海상공서 목격

【東京23日AFP=聯合】AS6 킹피시空對海 미사일을 적재한 소련의 TU16 배저폭격기 1대가 22일 상오 東海상공을 비행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日本방위청이 23일 발표했다。

아침에

유난히 짧았던 봄

「對話있는 對立」의 정신키워나가야

千寬宇 〈본사 고문〉

A兄。이번 일요일 아침에는 요즘 한참 耳目을 집중시켜온 宗教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 소감을 적어보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 터인데、때마침 「성명서」사건의 처벌을 留保한다는 발표가 들려오는군요。이 時點에서 뒤늦은 소감이란것도 도리어 긁어 부스럼이 될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나 역시 「시간과 싸우면서 일한다」는 記者의 한사람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시원스런 解決

「성명서」사건은 시원스러운 해결을 보았습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교회의 양심과 국법의 관계라는 또하나의 남아있는 争點도 서로 납득할수 있는 線이 모색될수 없는지 기대를 걸어 봅니다。

창밖은 어느새 꽃보다 新綠이 더 진해졌습니다。우리나라는 원래 봄이 짧다고도 하지만 이번 봄이 유난히짧았던 듯한 것은 봄을 즐길만큼 세상이 조용하지 않아서였을까요。

釜山에서 저 放火事件이 일어난 것이 3월18일이었으니까 벌써 한달하고도 1주일이된 셈입니다。방화사건자체도 유별난 것이었던데다가、일이 꼬이느라고 事態는 꼬리를물고 복잡하게만 번져서、이러다가는 어디까지 過熱이되려는지、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대로 第三者인 일반국민으로도 일말의 不安을 금할수없이 한철이 지나갔읍니다。

自由越南의 마지막 날이 남의일 같지 않다느니、우리의 형편은 越南처럼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느니、이런 말까지 오고간 것만 해도 그만한 憂慮가 밑에 깔려있었기 때문이겠읍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볼것은 아니라 하더라도、우리형세에 큰 이유없이不安定이 오래계속되면 안으로 할일이 더디어지고 밖으로도 제밥찾아먹기가 어렵게된다는것쯤은 쉽사리 예견되는 일이 아닌가요。

法의 판단앞선公論

A兄。大事를 치르고 나면、그때 그점이 소홀했다는 自評도 나오고 그만하면 잘된 셈이라는 自評도 나오게마련이지요。

이제「성명서」사건이 일단락되고 보니、모든 公論이 그동안 일치해서 요구했던 不擴散을 위한 自制의 덕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이번일에 各政黨이 공식논평을 아니하고 넘어간 것도 前例가드문 일이었읍니다。참견하기 거북해서라는 뜻이 아니라、풍파를 더 거칠게 하지 말자는 뜻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번에 각 신문이 문제의 성명서를 그것도 이른바 反體制 쪽의 성명서를 全文 혹은 長文으로 轉載한 것 역시 전례가 드문 일이었던 것같읍니다。法의 판단에 앞서 公論에 붙여서 물어보자는 뜻이었겠지요。그런데 公論은 비록 本意는 아니었더라도 그런 표현의 公表는 마땅치 않았다는 데로 크게 기운것이 주목됩니다。

이점、신문이 자기네 편한대로만 의견을 들었다고까지 強辯할 사람은 없을줄로 압니다。그 성명의 서명에 정자 가운데서조차 상당한 異見이 나왔다고 하니 말입니다。

아까도 反體制라는 용어를 쓰기는했읍니다만 나는 이말이 우리나라의 경우 그다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생각해오는 사람입니다。한편에서 維新體制라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한다고 反體制라고 흔히 부르던 무렵、『그러면 반체제운동대신 무슨 좋은 말이 있소』하고 묻는이가 있으면 나는「民主化운동이라면 어떨까」하곤 했읍니다。

體制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定義하고 있는지 잘모르겠읍니다。그러나 예컨대 封建體制니 絶對主義體制니할때 그것은 政府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상당히 근본적인 사회현상의 차이를 연상케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維新무렵에 改憲의 주장도 거셌지만 그것도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이 열려야 한다든가 국민의 기본권이 확립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이었지 대한민국이 본래 지향해온 기본體制를 어쩌자는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비판적인 입장、반대하는 입장은 물론 있을수 있다기보다도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요。그러나 아무리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면하여 反美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포함하여 國家利益에 중대한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일에는 신중해야 하겠다는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公論으로 재확인되었읍니다。그 불행한 事態에서 그래도 얻은것이 있다면 이점이 아닐까요。

「피차의매듭」設定

A兄。「성명서」사건이 한 매듭지어졌다고는 하지만 不擴散을 위한 自制는 아직도 한참 더 持續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대립도 대결도 없는 사회가 어디에 있겠읍니까。반대도 비판도 없는 사회가 전진할 까닭이 없지요。그러나 서로 좀더 이야기해 보고도 할수 있는 대립、整理될 것은 좀더 정돈된 반대이었어야 할 여지는 昨今의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성 싶어서입니다。

그것은 問題點을 縮約시켜 본 뒤의 대립。因果를 서로 미루기 보다는 피차에 매듭을 設定한 뒤의 반대라고는 해도 좋겠읍니다。내 마음에 안드는 일이야 허다하겠지만 그것을 낱낱이 벌여놓는대야 어수선하기만 할 뿐이라 무언가 結實이 기대되는 대립이어야 하겠고、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마음에 맞는 새출발을 할수도 없는 노릇이라 모두의 前進을 위한 반대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고비넘겼다는 安堵의 표정들입니다。누구의 得이되든 간에 지나친 不安定은 지겹다는 말이 자칫 나왔는지도 모르는 지점에 부대가 逢着한 것같은 느낌은 아닐까요。

이기회에 우선對話가 있었으면 합니다。밤낮으로 어울리는 사람들 끼리가 아니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對話가 대화일 것입니다。통할것은 통하고 안통한것은 무엇인가를 아는것부터가 유익하리라고 보기때문입니다。

A兄。모처럼의 이기회에 조금이라도 긁어부스럼되기를 원치않는다면서말이 길어질것같아 오늘은 이만줄입니다。

메아리

平生教育

「平生교육」에 관한 세미나가 22·23양일간 溫陽에서 열렸다。그동안 이런 세미나가 몇차례 있긴 했지만 「平生教育기구」서 마련한 이번것은 가장 큰 규모였다。

平生교육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社會教育의 큰과제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되기는 최근의 일이다。이번 세미나에서도 한국의 平生教育은 이제 겨우 點火단계에 있으며 그 방향을 잡는것이 곧 회의의 목적이라고 설명될정도로 아직 本軌道에 들어서지 못한 형편이다。

家庭·學校·社會를 통틀어 平生教育은 실현돼야한다。한데 문제는 이 3개영역의 教育을 「統合」하는 이념적인 방향을 어떻게 정립할것이냐는 점이다。이 教育領域의 수직적 통합문제에 대해 유네스코의 P·랑그랑 成人교육國際추진위원장이 그이념과 방안설정을 제창한것도 1960년대의 일이다。그러고 보면 아직 우리가 그 教育領域의 統合·分化문제에 대해서 출발점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은 어쩔수없는 현실이다。

한 토론자는 세미나에서 「韓國型」의 평생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그러나 어떤것이 「韓國型」인가에 대해서는 해답을 제대로 못한채 결국 문제제기로 끝내고 말았다。또 平生교육에 대해 언제나 「高揚」만 할것이 아니라 「실천」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이 아니냐고도 지적하였다。모두가 點火에 노력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는 이상의 토론이 되지 못하였다。

平生교육에 대한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교육要員양성、자료개발、기금확보、성인교육법의 전문적개발、교육수혜집단의 확대、平生교육·국가안보·정신교육의 일체화내지 조정、시청각 매체 활용의 다양화와 교육 용어 통일등。平生교육이란 그자체가 모든 국민들이바라는 교육을 언제、어디서나 제공하는 모임을 뜻하고 있다。이런점에서 點火단계에서는 정부의 행정적지원이 절대필요하다。당장에 「民間主導」라고 떼밀어낼수 없는 사업이 바로 이 平生教育이다。政府당국이 얼마나 平生교육에 열의를 갖고 지원한는지、성패의 판가름은 이에 달려있을듯 하다。

교육은 고착된 思想이나 哲學으로 머무를수 있는것이 아니다。人間生活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기능으로서의 實踐이란 점에서 平生교육도 앞으로의 「實現」이 큰 숙제일듯 하다。

波人地下항쟁 격화 파괴·태업등 만연

【바르샤바23日AP·UPI=聯合】지난해12월 당국의 계엄선포로 공식활동이 중지된 폴란드 자유노조는 23일 배포된 비밀전단을 통해 수십만명의 폴란드인들이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엄통치에 항의하는 지하저항운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바르샤바에서 이날 폐막된 폴란드 공산당 중앙위원회도 폴란드 경제가 노동자들의 점증하는 파괴·태업행위로 커다란 곤란을겪고 있다는 보고를 청취함으로써 자유노조회원들의 對정부 항의시위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것으로 시사됐다。

東海岸또 고래捕獲 길이10m 무게4톤

【江陵】길이 10m의 고래가 동해안에서 또 잡혔다。

지난 23일하오5시께 강원 注文津항앞 10마일 해상에서 길이10m 직경 1.5m 무게 4톤의 대형고래 1마리가 어부 金희수씨(40)가 쳐놓은 정치망에 걸려 들었다。

이고래는 注文津항 제1횟집에 1백만원에 팔린후 다시 소매상인 池모씨(여)에게 1백10만원에 넘겨졌는데 池씨는 생체 kg당 2천원씩 받고 고기를 팔고있다。【聯合】

한국일보 533·2361

海外토픽

犬糞청소 예산투입 ★파리에 백색淸掃車등장

파리시당국은 23일 시예산 1억6천만프랑(2천5백만달러)을 투입、시오염의 주요원인중 하나로 지탄돼온 犬公들의 분비물을 청소하기로 결정했다。

파리시청은 견공들이 매일 수도의 거리에 쏟아놓는 약 20톤의 분비물을 말끔히 치우기위해 한 용역회사와 8년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따라 앞으로 파리거리에는 빗자루와 고압살수장치를 갖춘 백색의 특수청소차들이 등장케되었다。

이 견공분비물청소차량들은 특히 여름철에 주인들이 바캉스를 떠나면서 거리에버리고 가는 견공들의 뒤치다꺼리도 그 주임무의 하나가 될것이라고。【파리=路透】

웨스트섬 獨立선언 ★美와의상징적戰爭도선포

美 플로리다州 남단에있는 키 웨스트섬이 23일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미국과의 상징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키·웨스트섬의 데니스·윈드로시장은 미국정부가 키·웨스트와 美본토를 연결하는 도로를차단하는 등 마치 외국취급을 하고있기때문에 연방에서 탈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섬의 광장에서 벌어진 한 행사에서 星條旗대신 노란색의 태양과 분홍색의 조개껍질이 그려진 깃발이 게양됐고、윈드로시장은 스스로를 「콘치 (바하마제도의토인) 공화국」수상이라고 선언。미국정부는 지난18일 마약밀수와 불법이민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전예고도 없이 키·웨스트와 본토를잇는 도로를 차단해 큰혼란을 빚었다。【키 웨스트=路透】

원숭이 귀빈대우 ★印、空輸시행령마련

인도에서는 상당히많은 원숭이들이 실험용으로 포획되고있는데 정부는 이들원숭이들이 멀리떨어진 실험실까지 공수되는 동안만이라도 편안하게 대우받도록 최근『원숭이 공수에관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지난65년의 시행령을 개정한 이법령은

▲원숭이의 몸크기에 따라 각기다른 우리를 사용해야한다。

▲원숭이취급자와 비행기 청소부가 깨끗한 위생상태를 유지해야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다。【뉴델리=路透】

外信안테나

◆美F16機百9臺 原隊복귀=美국방성은 날개부분의 결함가능성때문에 21일 비행중지된 F16전투기 2백40대 가운데 1백9대를 원대복귀시켰다고 22일 발표했다。【워싱턴=路透】

◆칠레、內務·財務등8閣僚경질=아우구스토·피노체트 칠레 대통령은 23일 내무·재무·경제상등을 포함한 8명의 각료를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피노체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실책으로 물의를 빚어온 세르히오·드·카스트로 재무상후임으로 세르히오·드라·쿠아드라 前中央銀行총재를、內相에는 엔리케·몬테로준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칠레내각의 군출신 각료의 수는 모두 15명으로 늘어났다。【산티아고=路透】

심령 부흥사경회

강사 : 고원용목사
시일 : 82년5월7, 8, 9일

저녁집회 : 금, 토, 주일 저녁7시30분
새벽기도회 : 토, 주일 새벽6시
성경공부 : 토요일 오전11시
조찬기도회 : 토요일 7시30분
(선교 100주년 기념 토론토 연합전도대회 준비기도회)

(강사소개)
학력 : 숭대철학과, 장로신학대학, 미국 훌러신학선교학과 석사및박사과정
선교학과 석사및박사과정 이수
경력 : 한국에서 15년간 목회및부흥회 100여회 인도.
현재 미국 맬리 제1장로교회 담임
I. M. A. 국제총무

장소 : 토론토영락교회 당
(김재광목사담임)
126'CONNOR DR. (at paqe) Toronto
선 화 : 423—9880, 759—2006

개업 3주년기념스페샬세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안에서 지난 3년동안 본서점을 애용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교민들과 교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서점은 미력하나마 문서복음 사업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자 하오니 계속 애용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호의와 성원에 보답코저 개업 3주년 기념 특별할인판매기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면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위에 넘치는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 토론토 종교서관 —

스페샬세일기간 : 5월1일부터 15일까지
영 업 시 간 : 10시반부터 저녁7시
(주일휴업)
품 목 : 기독교및 일반서적
설교및 성가테입
성화및 각종선물용품

종교서관
(아리랑식당옆)
전 화 : 535—1920
주 소 : 714 Bloor St. W.

한국일보 특집판

地球村형편 어떻습니까 <3>

몸살앓는 地表

門턱에 닿은 左翼격랑 美國은 숨통이 막힌다

中南美

소련과 쿠바, 그리고 이들의 지원을 받는 중남미의 좌익게릴라활동은 미국의 이익에 치명타를 가할 우려를 지니고있다.

만약 이 지역에서 쿠바에서와 같이 게릴라활동이 또다른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권을 수립하는데 성공한다면 파나마운하, 멕시코의 유전, 카리브海의 해상수송로가 모두 미국의 숨이 막히게 된다.

미국교역물량의 거의 절반가량이 파나마운하와 카리브해를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그리고 수입원유는 3분의2, 전략금속물자의 절반이 역시 이곳을 통과해야 한다.

이런 염려외에도 이 지역에 政情의 불안이 번져나가면 미국은 피난민의홍수에 시달리게 될것이라고 헤이그美국무장관은 밝혔다.

미국의 문턱을 넘실거리는 공산주의의 조류는 미국에겐 심각한 도전이 된다. 반대로 중남미의 공산화가 미국의 발목을 묶어놓을수 있다고 믿는 소련과 쿠바의 좌익게릴라 지원은 좀처럼 기가 꺾이지 않는다.

레이건은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피하면서 무기원조와 함께 게릴라에 이용당하는 빈곤퇴치를 위해 경제원조를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이 이 지역국가들의 비틀거리는 경제를 구출해내고 게릴라의 공세를 쉽사리 진정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거의 예외없이 모든나라가 극도의 빈부격차를 수반한 빈곤에 찌들고 있다. 실업률이 50%에 달하는 나라도 있다. 1인당국민소득이 2천달러를 넘는 나라는 한군데도 없다.

이러한 상황들은 게릴라활동에 가장알맞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것이다.

레이건은 금년중에 5억8천6백만달러의 경제원조와 6천만달러의 군사원조를 실시할 방침을 의회에 제출해놓았다. 이것의 대부분은 엘살바도르의 몫이다. 엘살바도르의 전투는 그만큼 중남미의 향방을판가름낼 결정적 전투라는점을 반증한다.

미국의 관리들은 엘살바도르가 게릴라의 수중에떨어지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같은 우방도 이내 좌익게릴라의 소요에 휘말린다고 믿고있다.

지난28일 엘살바도르의 총선에서 미국이 선거자금을대면서 지원한 두아르테현 대통령의 기민당이 과반수의석확보에 실패하고 나서 미국의 우려는 더욱 깊어졌다.

선거불참을 선언하고 투표장에 가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나온 게릴라의 협박에 정부보안군도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역시 유권자를 협박했다.

엘살바도르의 농촌지역에서는「오늘 투표하면 내일 죽는다」는 말이 떠돌았다.

엘살바도르의 두아르테 대통령은『농촌지역의 전투에서 우리는 패배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14개 지방에서 게릴라들은 자유스런 활동을 벌이고있다』고 엘살바도르의 최근 정세를 설명하고 있다.

비밀살인단은 좌익혐의자의 대량학살을 멈추지않고 있고 이것은 그대로 民心을 두아르테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4천내지 6천을 헤아리는 좌익게릴라는 2만2천의 정부군을상대로 히트앤드·런의 게릴라공세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崔相鎬기자】

印·파

宗教·캐시미르로 紛爭계속 아프간事態후 위기감 加重

◇엘살바도르의 총선거날인 지난 28일아침 수도 산살바도르시의 한투표장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피살된 게릴라들의 시체를 정부군이 트럭에 싣고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금년초 세계정세를 전망하는 특집기사에서 83년중 전면전이 발발할가능성이 있는 지역중의 하나로 인도-파키스탄관계를 꼽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지난 35년간 세차례나 전면전을 치렀던 印度亞대륙의 화약고。

힌두교와 이슬람교라는 종교적 갈등때문에 분리독립했던 이두나라는 캐시미르지역을 둘러싼 국경분쟁으로 적대관계를 계속해오다가 1979년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부터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열세에 몰렸던 파키스탄의 戰力이 증강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따라 인도·파키스탄 양국은 경쟁적으로 군비확장을 계속, 전면전의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고있다.

파키스탄은 65년 인도와 두번째로 전쟁을 벌였을때만해도 인도와 비등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71년 제3차 전쟁에서 패배,東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해 나가면서부터 國勢가 반으로 줄어들게되어 對印관계에서 열세를 면치 못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파키스

<7面으로계속>

中東

美 石油공급 위협땐 戰爭불사 蘇 美의 中東개입 坐視않는다

中東은 오늘날 한국과너무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中東산유국의 석유가 안팔리면 한국의 건설수주와 수출이 줄어 국제수지가악화되고 전쟁이 터지면 현지에 진출한 15만근로자의 안위가 걱정이 된다. 우리경제가 크게 비틀거렸던 71-72년과 78-79년의 1·2차「오일쇼크」도 中東분쟁때문이었다.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소지가있고 이 전쟁은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것이 中東지역이다.

미국은 서방세계에 대한 석유의 안정공급을 위협받을 경우 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며 소련은 中東에 미국의 개입을 좌시하지않겠다는 다짐이다.

미국은 中東의 유사시에 대비,2개의 기동함대를 인도양에 배치하고 신속배치군(RDF)까지 창설했다.

美蘇가 세계대전의 위험을 무릅쓸만큼 中東에 깊이 관여하는 이유는 이지역의 막대한 석유자원때문이다.

서방국가는 석유수요의 40%를,미국은 3분의1을 中東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소련은 이지역을 지배하면 미국과 서방국가의 명줄을 잡을 수 있다.

中東지역은 美蘇의 세계전략적인 이해와 外부적 여건외에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의 역사적인 대결, 회교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 소수민족의 항쟁등이 난마처럼 얽혀 어느한요인도 분쟁과 전쟁과 연결되는 불씨가 된다.

미국은 中東의 안정을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쿠웨이트등 페르시아만국가를 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보호하는것이 전략적 목표다. 그러자면 소련과 국경을 이루고있는 이란이 중요한 전략요새가 된다.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의 확보가 中東의 지배에 결정적인 것이다. 소련이 지난 79년12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것도 이란을 넘볼수있는곳까지 진출하기 위해서였다.

소련이 지난 80년9월 이란-이라크전쟁이 발발한이후 우호조약을 체결하고있는 이라크를 외면하고 엄정중립을 지키고있는것도 이란의 비위를 건드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中東전략은 과거 팔레비의 이란과 사다트의 이집트가 주축이었으나 오늘날 호메이니의 이란에는 속수무책이다.

또 이집트에는 손색이 다른 무바라크가 들어앉아 미국은 머리가 어지럽다.

때문에 미국은 사우디등 아랍온건국가를 中東안정의 축으로 삼으려한다.

美蘇의 대립과함께 이스라엘과 아랍세계의 역사를 이어온 대립은 이지역 분쟁을 더욱 위험스럽게하고있으며 소련에게 漁夫之利를 주고있다.

이스라엘과 아랍세계가 상호존재를 부인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땅인 예루살렘, 요르단강서안,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내놓지 않고있다.

문제의 근원은 팔레스타인들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요르단江西岸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국가의 창설을 목표로하고 이스라엘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않겠다는데있다.

오는 4월25일로 예정된 캠프 데이비드평화협정에 의한 시나이반도철수가 완료되면 분쟁의 양상은 더욱 심각해질것같다.

中東분쟁은 회교종파간의 분쟁이 사태를 더욱 어렵게하고있다.

회교정통파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은 지난80년 9월 이란-이라크전쟁으로까지 번졌다. 【申相碩기자】

左翼게릴라에 人質5日…許甲晉씨의 엘살바도르 脫出記

갈수록 활활 타오르기만하는 엘살바도르內戰。머나먼 나라의 血戰은 거리만큼 우리와 무관한것일까。엘살바도르까지 진출해 봉제공장을 세웠던 우리나라 三豊(株) 직원 28명이 지난 81년 1월16일 좌익게릴라들에의해 집단적으로 인질이된지 5일만에 풀려나 공장을 그대로 남겨둔채 필사적으로 과테말라국경을 넘어 탈출했다。당시 이들의 일원이었으며 한국인으로서는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엘살바도르내전 체험기를 許甲晉씨 (33·현재 現代綜合商事근무) 의 증언을 들어본다。

하이킹服에 旅行위장 生命건 大疾走 4시간

밤1·2시께 둔탁하게 들려오는 총소리에 잠을 깨는 날이 잦아졌다. 로메로정권이 군사쿠데타로 붕괴되고 5인군사평의회가 집권하면서 사태는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산살바도르중심가에 있는 기숙사에서 출근을 서두르는 남자직원11명, 여자기능공17명등 28명의 한국인들의 얼굴은 갈수록불안감에 젖어있었다.

1월16일상오7시30분。식사를 마친 남자직원들은 일터가 아니라 마치 전쟁에 나가는 병사처럼 실탄이 장전된 권총 한자루씩을 가슴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날따라 언제 어디서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더욱 실감나게 느껴졌다.

산살바도르근교의 소나·프랑카(자유공업단지)에 있는「三豊살바」공장까지는 매일 통근차를 타고 출퇴근한다.

20여분 달리는동안 창문커튼은 밖에서 안을볼수없도록 모두 내린다. 좌익게릴라의 1차공격대상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이다. 커튼틈으로 거리의모퉁이마다 밤새 테러로 죽은 주민들의시체가 가마니로 덮혀있는모습을 훔쳐보는데 이젠 모두들 익숙해있다.

시체주위에 몰려든 구경꾼들은 서로 수군거리는가하면 히죽히죽웃는 낙천적인사람도있다.

통근차에서 내리면서 사무실쪽을 보니 낯선 20세전후의 현지인청년 4~5명이 서성이고 있었다. 2명은 총든 가방들고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직공모집광고를 보고 면접하려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정각9시부터 공장이 가동되고 3백60여명의 현지인직공들(10명만 남자)이 분주히 움직였다.

20분쯤지났을때 였다.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모터가 내려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여기저기서 놀란 여공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일이 드디어 터졌구나직감한 나는 창밖을 재빨리 살폈다. 아까 본 현지청소년의 옷자락사이로 M16총구가 눈에 띄었다. 가방속에서 꺼내 옷자락으로 감싼것이다. 사무실안에 있던 한국인직원몇명이 밖으로 뛰려고 했지만 문은 이미 좌익게릴라들에게 완전봉쇄된 상태였다.

『이젠 죽었구나』하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정신을 차려야지 산다는 생각을 가다듬고 있을때 40대중반의 현지인 남자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왔다。공장안에있던 직원들을 사무실로 한데 모았다。이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대표자가 누구냐고 물어왔다。폭뛰어나온 허리춤속으로 권총이 노출되어 있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냐고물었지만 그는 계속 대표자만을 찾았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누구나 대표자는 납치될 위험이 있다는것을 익히 알고있었다。열마전 완전철수한 일본직물회사「인싱카社」의 마쓰모도사장이 게릴라들에게 납치, 6백만달러의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적이 있었다. 외국인들의 몸값이 게릴라들의 유일한 자금원이다.

공장 포위 "월급올려라" 拉致劇

革命歌에질려 「가고파」로 맞서…시체보고 웃는시민

◇산살바도르근교의 三豊(SAMPOONG) 봉제공장앞에서 현지여공들과 한때를 보낸 許甲晉씨。

공장은 완전히 포위됐다는 괴한의 말투가 다소 높아졌다。게릴라들은 FAFU좌익단체소속이었다。사태가 험악해질것같아 金光男(38)공장장이 나섰다。

괴한은 자신들이 공장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왔다면서 서면으로 잘 작성된 요구서를 내밀었다。현지직공들의 임금1백%인상,해고당한 직공들의 복직, 노동조합기부금납부등 10여가지의 요구사항이 적혀있었다。당시현지공원들의 한달임금은 1백20~2백50달러수준이었다。

얼마전만해도 일본직물회사 미국전자회사 臺灣신발공장등 7개국 10여개회사가 소나·프랑카에 들어와 있었으나 모두 철수하고 오직 우리한국회사만이 버티고 있었던것이 탈이됐다.

미국회사의 고용주는 과테말라등지에서 전화로만 지시、경제는 물론、원거리경영을 할뿐 모두 현지인들에게 넘겨준상태였다。

우리측은 그들의 요구를 즉각 거절했다。사실상 그들은 노조운동을 위장해 여공들을 반정부좌익세력으로 참여시키는것이 목적임을 우리는 알고있었기때문이다。

5일간의 고통스럽고 지리한 인질생활이 시작됐다。

우리는 이사태를 엘살바도르당국과 본국에 급히 알려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느닷없이 金현수씨 (프레스반장) 가 배를 움켜잡고 쓰러졌다。탈출극이었다。

당황한 게릴라들은 망설인끝에 감시하에 金반장을 병원으로만 보내는데 동의했다。

金씨는 병원에서 감시원의 눈을 피해 엘살바도르당국과 과테말라 대사관에 인질사태를 알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당국은 노조문제이니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어처구니없는통보를해왔다。나중에알게된일이지만공단관리자와 경비원들도 좌익 게릴라들에게 포섭된 것이었다。

게릴라들은 다행히 몸수색이나 폭력은 행사하지않았다。

미국인들보다는 한국인에게 보다 호감이있는듯했다。게으르지만 온순한 현지여공들도 우리와 똑같은 5일간 인질이 되는 고통을 겪어야했다。

게릴라들은 여공들을 한데 모아놓고 산디니스타게릴라운동에관한 영화를 보여주는가하면 혁명가、구호들을 부르게 하기도했다。

하루종일 불러대는 강요된 노래소리에 우리의 심경은 더욱 날카로와졌다。

참다못한 우리직원들은 이 노래가 들려올때마다 가고파등 한국가요를 소리높혀 합창하기도했다。

식사는 게릴라감시원이 탑승한 통근차로 숙소에서 날라다 먹었다。그러나 때를 거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하루에 두끼 정도먹으면 다행이었다。시간이갈수록 초조해졌고 3개월전 고국으로보낸 아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것이었다。

◇공장도 짐도 모두 산살바도르에 그대로 둔채 한가로운 여행으로 위장, 과테말라국경을 넘어 탈출 할때의 모습。

인질이틀날, 산살바도르에서 오랫동안 정착한 현지교포 崔관능씨 (태권도사범) 가 우리의처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 게릴라들에게 협조를 부탁하기도했다。

崔씨는 대학교수인 현지여인과 결혼, 2자녀를두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우리를 많이 도와주곤했다。유일한 현지교포인 崔씨도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결국 81년말 미국으로 건너가고 말았다。

그러니까 현재 엘살바도르에 살고있는 한국인은 한명도 없는셈이다。

인질 4일째가되던날 美UPI통신기자가 찾아와 내용을 묻고갔고 5일째되던날 게릴라들은 임금을50%올려준다는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여 인질을 풀었다。악몽에서 깨어난 것이다。우리는 그후한달동안 공장가동을 계속했으나 정전·단수사고가 잇따라 포기상태가 되었다。연일 거리에는 데모가일어나고 좌·우익사이에 유혈이 남자했다。우리는 밤새 생각끝에 공장을 그대로 남겨둔채 철수하기로 결정、사물(私物) 마저 버리고 과테말라국경을향해 차를 몰았다。우리가 도주하는것을 게릴라들이 알 경우 사살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하이킹 복장으로 여행가는것처럼 위장하기도했다。

하늘이 우리를 도왔을까。우리는 4시간의 大疾走끝에 국경을 넘는데 성공한것이다。국경을 뒤로 하는순간 우리는 서로부둥켜 안은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水原에서 崔海雲기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95>

朴婉緖 作 金光培 畵

明暗 ㉙

자신의 모습을 비쳐볼수있는건 검정유리벽뿐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속에서 만나는 그의 입사동기들도 거울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다를바 없었다。하나같이 그의 분신(分身)아니、복사판인것처럼 영락없이 닮아있었다。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나게 말쑥한 복장하며、필요이상 긴장해있는 거하며、몇십대일의 경쟁을뚫고 선택됐다는 엘리트의식이 온몸에 기름처럼 잘잘 흐르고있는거하며、앞으로도 계속 선택되어 선두를 달리기위해 밀쳐내야할 만만한 상대를 찾는 눈치와 적의가 번득이는 눈동자 하며、자신과 남을 구별할수 없을만큼 똑같았다。

입사동기만이 아니었다。갑은 회사물 먹은지가 몇년 더 돼、높고높은 사다리를 한두칸씩 기어오르기 시작해 주임이니 계장이니하는 호칭붙은 중견사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대개 남을 얕잡는 것같기도하고 비꼬는것 같기도한 여유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손가락엔 다이어가 박힌 결혼반지를 끼고있었고 육아에 대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다。저마다 운전을 배우러 다녔고、아파트에서 침대생활을 하고있었고、코피에 인이 박혀있었고、출장이나 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나들이 하고온것을 첫사랑의 미련처럼 분복분복 풍겼다。

이런 관록들은 화이트칼러까지도 결코 까마득하지 않았다。인재는 오히려 그들에게서 더 많이 자신의 몇년후의 모습을 비쳐보고 있었다。

이렇게 그는 요모 조모로 자신을 비쳐보는 사이에 기분이 많이 회복됐고 자신감도 생겼다。그건 이 도시에서 내노라고 뽐낼만한 첨단의 모습이었고、딸가진 사람이 침흘려 마지않을 사윗감이었기때문이다。

열등감 같은거 느낄 까닭이 없었다。인재는 그에게당치않은 열등감을 느끼게 한 수지와 수지네 식구에게 분노했다。언제고 복수할 날이 있으리라。딸 가진쪽에서 사윗감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는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라는걸 깨닫게 하리라。

그러나 인재가 꿈꾸는 복수는 반드시 수지와 결혼할 것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것이었다。

이렇게 출근과 동시에 회복된 자신감때문에 인재는어젯밤의 수모를 될수있는대로 과소평가하려 들었다。먼저결혼한 선배의 경험담에 의하면 연애가 결혼으로까지 골인하기위해선 그 정도의 수모는 보통이었다。전화를 중간에서 잘라먹는건 초보고、도둑놈취급、개취급까지를유들유들 견디는게 총각을 면하기위한 고된 시련이라는거였다。그러나 바로 그때까지가 딸가진 쪽의 전성기이고 일단 결혼만 하면 형세는 역전돼 처가집처럼 만만한데가 없고 처가에선 사위처럼 두려운 상전、귀한 손님은 없게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어디까지나 처가식구들과의 관계지、아내가 될 여자는 연애시절부터 엄하게 길들여야지 그렇지 못하면 일생 엄처시하를 못면한다는 것 또한 선배들의 경험담이었다。

그저 우스개소리 정도로재미 있게 듣던 결혼선배들의 이런 경험담이 그의 경우에도 딱 들어맞는 것 같았다。

인재는 선배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교훈 삼기로 했다。어제밤의 수모가 그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위된 사나이 공통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편해지면서 웃음까지 났다。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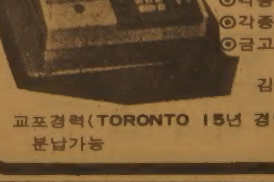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6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광고도안무단전재
본지의 광고 디자인을 무단 전재하는것을 금합니다.
광고주가 만든 도안이면 광고주의 허가를, 본사 광고부의 사전양해가 필요합니다.
한국일보사 광고부
전화 : 533-2361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일보 특집판

地球村형편 어떻습니까 (끝)

國境과…宗敎와…人種과…獨立과… 탓도 많은 6개의 「미니火藥庫」

中共의 ICBM개발이후 새 局面에

中·蘇 국경

세계에서 가장긴 국경선인 中·蘇국경의 변화는 전세계 정세를좌우한다。

중공과 소련은 지난 69년의 대규모 국경충돌이후 국경지역에서 냉랭한대치상태를 계속해왔다。

양국국경지역에 배치된 병력은 중공측이 1백8개사단에 1백50만명、소련측이 46개 사단에 40만명가량。

지상군병력의 대치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핵무기의 대치상황이다。

양국의 국경대치상황은 중공의 ICBM개발이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양측이 모두 상대방의 심장부를 때릴수 있는 능력을 갖춤에 따라 과거와 같은 국경충돌위험은 줄어 들었으나 상대적으로 大戰의 잠재위험은 높아지고있다。

소련의 SS20基중 90대는 [illegible]의 시코테지역과 중공북동부 蘇滿국경에서 중공및 東北亞를 노리고있으며 나머지는 코카서스지방에서 중공과 서구를 함께 노리고 있다。

아마존·비글해협 領土權 싸고 緊張

南美 失地戰

南美의 국경충돌은 언제라도 무력충돌로 번질 위험을 안고있다。

1980년1월 에콰도르는 1942년의 국경충돌에서 페루에 빼앗긴 자원의 보고 아마존지역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양국이 무력충돌을 벌였다。미국과 브라질등의 중재로 휴전은 이루어졌으나 에콰도르의 失地회복의 결의가 누그러지지않아 또다시 무력충돌의 소지가 남아있다。

1977년 南美남단 비글해협의 3개섬을 영국의 엘리자베드여왕이 칠레에 할양한결정에 페루에서 반발、1978년 전쟁직전의 상황까지 사태가 악화됐으나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중재로 진정、교황중재의 내역은 비밀로돼있으나긴장은아직여전하다。

1879년 칠레와 전쟁에서 태평양출구를 빼앗긴 볼리비아는 1978년 칠레와 협상에서 失地회복에 성공했다。그러나 失地회복의 조건으로 칠레에 다른 땅을 내주기로한 약속을 거절、양국관계가 긴장돼가고있다。

기독교·모슬렘등 17개宗派 세력다툼

레바논 紛爭

레바논분쟁의뿌리는 복잡한 宗派에 있다。

인구2백60만의 조그만나라에 무려 17개의 종파가 모자이크를 이루고있다。

가장큰 종파는 기독교 마론파로 전체인구의 30%、다음은 모슬렘 수니파로20%를 차지한다。이밖에 그리스正敎、가톨릭、프로테스탄트、시리아正敎등의 기독교종파、수니、시어、드루제등의 모슬렘종파들이 어지럽게 가지를 치고 있다。

종파 또는 교파는 각기 일정한주거지역을 설정해놓고 산다。수도 베이루트는 소위 그린 라인을 경계선으로 동쪽은 기독교 서쪽은 모슬렘의 거주지역이며 전국의 다른도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권력기구도 파벌의 세력대로짜여져 대통령은 마론파、수상은 수니파다。

이렇게 복잡한 종파국에 시리아 이스라엘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이해가얽혀 분쟁은 그칠날이없다。

가톨릭系원주민 英國 차별에 저항

에이레 抗爭

북아일랜드분쟁사태는 1921년 에이레공화국이 영국의 오랜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분리독립했을때부터 시작된 가톨릭계 원주민과 프로테스탄트계 이주민간의 내전。

당시 영국은 에이레 32개주중 남부26개주엔 자치를 허용한 반면 영국인이민자손인 프로테스탄트교도들이 압도적으로 다수인 북부6개주(북아일랜드)만은 영국의 일부로 잔류시켜 에이레원주민의 불만이 쌓였다。

북아일랜드인구 1백50만중 3분의 1밖에안되는 가톨릭계원주민은 영국의 차별대우에 항의했으나 프로테스탄트계의 양보를 얻지못해 양파주민간의 반목은 더욱 심화했다。

그결과 가톨릭계에이레인들중 일부는 1968년 게릴라조직인 에이레공화군(IRA)을 결성、완전독립을 요구하며 피의 항쟁을 벌였으며 또한 IRA에 대항하여 이번에는 프로테스탄트계가 얼스터防衛聯盟(WDA)을 조직하여 내전을 북돋웠다。

白人들이 富독점…黑白충돌 잇달아

南阿共 폭동

흑인과 백인의 완전분리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南阿共의 악명높은 인종차별정책은 소수의 백인지배층이 다수의 흑인피지배층을 수탈하겠다는정책이다。

南阿共의 백인인구는 4백40여만、흑인은 2천4백만정도이다。모든관직과 금·망간·다이어먼드등 천연자원과富는 모두백인이 독점하고있다。

「흑인에 의한 아프리카(블랙아프리카)」에 눈을뜬 대다수 흑인들이 이러한 불평등을 좌시할리 없다。

76년 흑인거주지 소웨토市에서 1천여명의 사상자를 낸 흑인봉기가 있었고 그여진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간헐적인흑백충돌이계속일어나고 있다。

77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유엔의 경제제재와 세계각국여론의 압력에도불구하고 南阿共 백인정권은 인종차별의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을 태세다。

핵무기로라도 아프리카의 마지막백인보루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과격한 독립운동…每年 백여명 被殺

바스크 테러

바스크분리주의게릴라(ETA)들의 과격한 독립운동은 스페인이 당면한 가장 큰문제중의 하나가되고있다。

피레네산맥과 맞닿은 스페인북부해안지역에 위치한 바스크지방은 프랑코총통사망후 사실상 선거를통한 자치정부형태를 갖췄으나 분리주의자들은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며 공공연한 테러활동을 벌이고있다。

ETA의 주된 공격대상은 고위정치인、무관、민병대、외국외교관들로 매년 1백명이상이 그들의 손에 희생되고있다。

1931년 공화국수립후 어느정도 자치제를 허용받아 스페인공화국의 일원으로 남았으나 36년~39년의 내전이 종식됨과 함께 프랑코의 중앙정부에 흡수됐고 자치권도 박탈됐었다。

이에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프랑스에 망명정부를 수립했으며 국내에서는 좌파세력을 중심으로한 ETA가 치열하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한것이다。

紛爭의 회오리

〈6面에서계속〉

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소련군 8만5천명가량이 주둔하게 됐다는 사실은 남쪽의숙적 인도로부터의 위협과 함께 매우 다급한 상황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중동및 서남아시아로 뻗어나가려는 소련세를 견제해야만하는 미국의 입장때문에 파키스탄에게는 소련의 아프간침공이 오히려 전화위복이되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손으로 들어가게 되자 印度亞대륙에서 소련을 견제할수있는 최전선에 나서게된 파키스탄을 지원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지아·울·하크 파키스탄대통령은 이같은 미국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미국으로부터 향후 5년간에걸쳐 F16전투기 40대및 30억달러규모의 軍經원조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이로써 파키스탄은 지난10여년간 열세에 몰렸던 인도와의 군비경쟁에서 다소 만회를 할수있게 되었다。

파키스탄이 F16機를 보유하게되면 공군의 작전능력이 대폭강화되어 국경에서 반경 1백50㎞거리에있는 인도의 핵실험기지및 핵발전소、방위산업체、군사시설등이 모두 공격권내에 들게된다。

파키스탄에 대한 美軍援이 계획되자 인도도 이에 뒤질세라 소련、프랑스등에서 무기를 구입、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인도는 80년5월 소련과 무기공여협정을 체결、16억달러상당의 무기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인도는 또 프랑스로부터 미라지2000機 도입을 적극추진중이며 미그25機도 갖추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印파 양국의 전면전의 위협은 또하나 핵문제이다。74년 핵실험에 성공、세계에서 4번째로 핵보유국이 된 인도는 파키스탄의 원폭보유 가능성에대해 가장큰 우려를 하고있다。

파키스탄은 이미 원폭제조공장을 갖추고 소위 「이슬람原爆」을 개발、핵실험단계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는 가운데 인도는 원폭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자체개발하겠다고 선언하고나서 양국분쟁은 재래식전쟁이 아닌 핵전쟁으로까지 번질가능성도 있다。

【朴永鶴기자】

◇블라디보스토크 기지를떠나 유럽으로항해중 말라카해협을 통하고 있는 소련항모 민스크호。 말라카해협이 소련의 수중에 들어갈경우 한국의 중동원유수송도 큰위협을 받게된다。

유럽전역에 "脫蘇·美"팽배 아슬아슬한 「恐怖의 균형」

유럽

유럽은 얼핏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지역으로 보인다。엄청난양의 핵무기를 배경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군이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美·蘇양대국의 사활이 걸린 이지역에서 전쟁이 터질경우 이는 곧 3차대전의 발발을 의미한다。

하지만 힘에의한 세력균형으로 안정된 유럽을 한겹만 벗겨보면 세계어느지역보다도 치열한 다른종류의 분쟁이 도사리고있다。

유럽각국간의 경제전쟁과 東西양진영사이의 첩보전쟁과 외교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유럽합중국 건설이라는 거대한 기치를 내 걸고 出帆했던 유럽경제공동체(EC)가 회원국간의 경제싸움으로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그리스의 탈퇴위협등으로 남부방어체제에 불안이 조성되고있다。

동유럽도 마찬가지다。유고와 루마니아의 脫蘇정책선언과 체코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폴란드사태가 터졌다。

폴란드사태가 터지자 동독과 체코등 동유럽의 크렘린 우등생들은 집안단속에 바빴고 소련은 연거푸 바르샤바조약군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중립주의를 표방해온 노르웨이가 소련침공에 대비하기위한 방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81년 12월의 슈미트―호네커의 제3차 양독 정상회담개최로 돌파구를 찾았던 兩獨관계는 다시 꽁꽁 얼어 붙고 말았다。

미국의 크루즈및 퍼싱Ⅱ미사일 유럽배치를 둘러싸고 東西양진영간에 치열한 외교설전도 벌어졌다。

서독、덴마크등 서유럽국가에서는 反美색채를 띤 反核시위가 일었고 이평화시위는 루마니아와 동독등 동유럽공산국가에까지 파급되었다。

소련은 그자신이 유럽국가이고 미국은 對外정책의 최우선을 유럽에 두고있을뿐더러 25만여명에 달하는 병력을 유럽에 상주시키고 있다。

이처럼 美·蘇의 강력한 영향권아래있는 유럽인지라 분쟁의 양상도 군사적 충돌보다는 다른 양상을 띨수밖에 없다。

폴란드사태같은 경우에도 서유럽국가가 취할수있는 조치는 경제제재조치가 고작 이었다。

또한 같은 진영에 속하는 동맹국끼리의 분쟁이 오히려 더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다。

폴란드사태때 가장 두드러졌던것은 미국과 서유럽NATO회원국사이의 불협화음이었고 EEC회원국들은 소련과 폴란드에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결정해놓고도 자기나라와 이해에 얽혀 손발을 맞추지 못했다。

서독·프랑스등 NATO회원국들은 미국이 폴란드계엄통치때문에 소련에대해 경제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모두1천8백억달러에 달하는 세기의 협정이라 불리는 소련産 시베리아가스 공급협정을 체결했다。

설혹 소련이 폴란드를무력침공한다해도 서유럽국가가 취할수있는 대항조치는 서로 손발이 맞지않을 것이 뻔한 경제제재조치뿐일것이다。

유럽에 워낙 짙게 드리워진 美·蘇의 그림자때문에 유사시 유럽국가가 취할수있는 한계성이 분명해지자 최근들어 脫蘇및 脫美기운이 유럽전역에 팽배해지고있다。

유럽지역에서 東西가 가장 예리하게 대치하고 있는곳은 역시 독일。독일은 바르샤바 조약군과 NATO군이 서로 맞서고 있는 최전방분기점이다。

동독、NATO에 가입한뒤 불과 며칠만에 결성되었을 정도이다。

소련이 폴란드 사태때 가장 고심한것이 동독으로 가는 소련군 진주로가 막히지 않을까 하는것 이었다。동독이 흔들린다는것은 소련의 동유럽지배의 끝장을 의미하게 된다。

【李炳圭기자】

◇시나이반도에서 이스라엘군이 철수함에 따라 이지역의 평화유지를 위해 투입되고 있는 美공정부대。 싸움을 붙이고 싸움을 말리는 강대국의 두얼굴을 볼수있다。

東南亞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베트남군의 乾期대공세가 절정에 달하고있다。

지난연말 처음으로 캄보디아 서부국경에서 공중폭격을 감행한 베트남군은 1백30㎜ 장거리포와 수륙양용의 76탱크를 동원、캄보디아북부의 크메르·루지정권게릴라들의 보급선을 맹타했으며 생존게릴라들은 태국영내의 우본·라트차타니쪽으로 도주했다。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점령하고 3년이지난 지금까지 베트남군과 반군간의 전투는 열을 더해갈뿐이며 베트남군은 화학무기를 사용、반군의 대량살상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그치지않고있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3월초 중공어선 3척에 발포、이중 한척을 폭파시킴으로써 79년의 양국국경전이래 최대의 해상전을일으켰다。

동남아는 베트남전 종결이후 78년의 蘇越군사협정체결에이은 베트남의 캄보디아침공、79년의 中越전쟁등 잇달은 분쟁으로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현재 동남아의상황은 소련을 등에 업은 印支3국(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과 비공산 아세안5개국(태국、말레이지아、필리핀、싱가포르、인도네시아)의 대립현상과 중공의對아세안진공작으로요약된다。

미국의 베트남철수는 결국 이지역서 소련세팽창의 계기가 되었고 印支3국의 일단정화는 아세안5개국에 도미노이론의 망령을새겨주었다。

특히 인지3국과 국경을 맞대게 된 태국은 캄보디아 반군의 추격을 명분으로 툭하면 越境하는 베트남군과의 국경충돌로 심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베트남-中共 적대감高潮

蘇、말래카해협 노려…中東~한국航路위협

베트남의 캄란灣、다낭港과 캄보디아의 콤퐁솜港에 해군기지를 건설한 소련은 최근 캄보디아의 레암港에 또 하나의 기지를 건설했다。

소련이 이기지를 발판으로 동남아에 힘을뻗친다고 가상할 경우 아세안5개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도 발끝까지 밀고올라온 소련의 위협을 실감하게될것이다。

특히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사이에 위치한 말래카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관문으로서 동북아를 왕래하는 서방의 모든화물선의 길목。

중동의석유에 크게 의존하고있는 한국으로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만약 이 해협이 소련의 수중에 들어간다고하면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서부해안을지나 롬보크해협을 통과해야하며 중동서 한국에 이르는 항로는 3일내지 1주일이 더 소요된다。

지금 이해역에 탄도미사일을 적재한 핵잠수함을 영구진주시키고 있는 소련이 이 해협을 장악한다면 블라디보스토크와 인도양사이에서 작전중인 소련해군은 전략적으로 상당한이득을 얻게되는 것이다。

또 중공을 군사적으로포위、고립시킨다는 기본전략을갖고있는 소련에게는 베트남을 비롯한 인지3국이 쿠바이상으로 중요하다。

소련은 인지3국을 발판으로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외몽고를 잇는 중공포위망구축을 계획하고 있다。소련이 베트남을 앞세워 아세안국가들에 손을뻗치는것도 중공을 고립시키겠다는 적극적 의지를나타내는 것이다。

아세안은 궁극적으로 소련과 베트남의 영향에서벗어난 새 캄보디아 정부가 베트남과 태국간의 완충역할을 해줄것을 희망하고있다。

동남아지역에서 중공의 역할은 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공은 反蘇외교 목표와 관련、아세안 제국과의 우호관계 유지가 필요하며 현대화 계획추진을 위해 통상증진과 같은 실리적인교류확대가 절실한 것이다。

크메르·루지 게릴라들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중공은 80년2월、국경분쟁 1년만에 베트남과 국경분쟁 해결을 위한 차관급회담을 가진이래 81년 5월부터 무력충돌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날 베트남구항의 충돌에서 포격으로 적대감정은 더욱 고조되고있다。

【俞興根기자】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3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886-1198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30 수요예배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10: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회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2: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성령교회	김관선	새벽예배(토.일):아침6시 금요성경공부:저녁9시 주일오후 2:00	379 Kenneth Ave.	275-4650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한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게화심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웅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웅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선교교회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馬山港 어패류 重金屬오염

人體에 해독 종합養殖場 9월폐쇄

【馬山】 馬山市는 26일 馬山港의 어패류가 중금속에오염돼 인체에 해독을끼칠우려가 있다고 판단, 현재 가포와여동해안에 시설돼있는 12㏊의 종합양식장을 허가기간이 끝나는 오는9월부터 완전폐쇄키로했다.

馬山市에따르면 馬山港의 해저토양은 크롬0.3~0.14~6.24PPM, 카드뮴0.3~0.93PPM, 납30.195~1백5.6PPM, 아연40.6~3백80.1PPM으로 나타나 납과 아연은 일본 東京港보다 훨씬 높은것으로 밝혀졌다는것.

시는 이에따라 가포양식장 12㏊를 비롯, 덕동 5개 홍합양식장등 10㏊를 모두 폐쇄키로하고 이곳 어민들이 거창고성등지로 이전을 희망하면 경남도에건의 새양식장을 주선해주기로했다.【聯】

乙支路 鎔接불똥 튀어 地下鐵공사장 불

24일하오4시15분께 서울中區乙支路6街18 국립의료원앞 서울지하철2호선 615공구(시공자 주식회사三湖) 지하5m지점에서 철근용접을 하던중 용접기에서튄 불똥이 10m아래 바닥에 쌓아둔 방수용 물타르더미에인화되면서 불이나 3평정도의 토류판을 태우고 10분만에꺼졌다.

불이나자작업중이던용접공 申相鎬씨(28)등인부10여명은 재빨리피해 인명피해는없었으나 토류판에 바르기위해 석유를섞은물타르가타면서내뿜는 검은연기가 공사장위로 치솟아 시민들을 놀라게했고 일대의교통이 한동안마비됐다.

호텔투숙 日社長 心臟마비로 숨져

24일 새벽4시30분께 서울中區小公洞 롯데호텔 3333호실에 투숙했던 일본파이어니어사 사장 石塚康三씨(68·東京都杉並區永福3의30―8)가 심장마비증세로 숨졌다.

지난21일 삼성그룹회장 李秉喆씨의 초청으로 湖岩미술관개관식에 참석차 우리나라에온 石塚씨는 24일 출국예정이었다.

屍身1具발굴 지하철 붕괴사고

서울西大門區峴底洞 지하철공사장붕괴사고로 매몰됐던 인부 1명이 24일 하오5시5분께 지하 23m 지점에서 발굴됐다. 발굴된 시체는 金相港씨(25·충남扶餘郡內山面雲峙里)로 밝혀졌는데 金씨는 감재와 흙더미에 깔려있었다.

金추기경 訪加 韓人교회 준공참석

金壽煥추기경은 24일 하오 캐나다 토론토시의 한인교회 준공식에 참석키위해 金浦공항을 떠났다. 金추기경은 이날 출국에앞서 검찰의 李哲熙·張玲子사건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발표내용을 잘보지않아 할말이 없다. 金勝勳신부등 3명을 만나고 그분들의 말을 듣고나서 발표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것같다고 느꼈다. 나는 처음부터 이번사건이 조용히 처리되기를 바랐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다.

校內시위 선동혐의 高麗大生 1명拘束

서울城北경찰서는 24일 高麗大국문과 4년 朴鍾赫군(23)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朴군은 지난달18일낮 12시께 高麗大 학생회관내 「고대문화」 편집실에서 후배 10여명에게 3월14일 불발로그친 도서관앞시위사건을 스스로 분석한 「3·14정리」라는 유인물6장을 나눠주었고 19일 상오11시30분께에는 학교부근 경양식집에서 같은과 후배 李모군(22)에게 「학생부재방법」이라는 유인물을 전달, 교내시위를 선동교사한 혐의를 받고있다.

延大명예교수 金鳴善박사

우리나라 생리학분야의 대가인 연세대명예교수 金鳴善박사(사진)가 24일상오2시 서울麻浦區望遠洞308의26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86세.

왼손力投…홈서 逆轉勝

三星·롯데, 1·2位고수

各各 해태·青龍꺾어 OB는 三美제압

프로야구

◇24일전적

	1	2	3	4	5	6	7	8	9	계
◆부산 MBC	2	0	0	0	0	0	0	0	0	2
롯데	0	0	2	0	0	0	0	1	X	3
◆대구 해태	0	1	0	0	0	0	0	0	0	1
삼성	0	0	0	0	2	0	0	0	X	2
◆춘천 OB	0	0	0	2	0	0	3	0	1	6
삼미	1	0	0	2	0	1	0	0	0	4

◇전기리그순위 (24일현재)

	승	패	승률
①삼성	9	5	.642
②롯데	7	4	.636
③O B	8	5	.615
④MBC	6	8	.428
⑤해태	5	7	.416
⑥삼미	3	9	.250

三星라이언즈와롯데자이언츠가 왼손잡이 투수들의 역투에힘입어 홈구장서역전승, 프로야구전기리그 1, 2위자리를 고수했다.

三星라이언즈는 24일 大邱로 처음 원정온 해태타이거즈를맞아 좌완 權永浩가 7회동안5안타, 5四死球, 1자책점으로 선방하는한편 5회말 3번 許圭沃의 동점 2루타, 4번 李萬洙의 결승2루타로 2―1로 역전승했다.

롯데역시 좌완千昌浩의 변화구로 MBC青龍을 9회동안 4안타, 2실점으로 막으며 8회말 2번 權斗祚의 좌전결승타로 3―2의 역전승을 거뒀다.

한편 OB베어스는 春川원정경기서 三美슈퍼스타즈를 6―4로 제압, 3위를 지켰다.【聯】

담배갑廣告에 1억8천만원

럭키, 五輪등支援

담배갑 광고를이용한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활기를 띠고있다.

주식회사 럭키는 88년올림픽을 지원하기위해 최근 국민체육진흥재단에 1억8천여만원의 담배갑광고를 청약했으며 83년에도 광고청약규모를늘려 88년올림픽을 간접지원할뜻을 밝혔다.

월드컵蹴球 우승 브라질 強力후보 英 도박사들

【런던AP=聯】 英國의 도박사들은 오는 6월13일 개막되는 스페인 월드·컵축구대회의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브라질을 꼽고있다.

英國의주요 마권회사인 로브룩스는 브라질이 통산4번째 월드·컵우승을 차지할 승산이 2―1로 가장 크다고 보고있다.

로브룩은 그 다음 순위로 西獨(승산 4―1), 주최국인 스페인(7―1), 78년대회우승국인 아르헨티나(10―1)를 꼽고있다.

아시안게임組織委 어제 懸板式

86서울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24일 상오 10시 체육회관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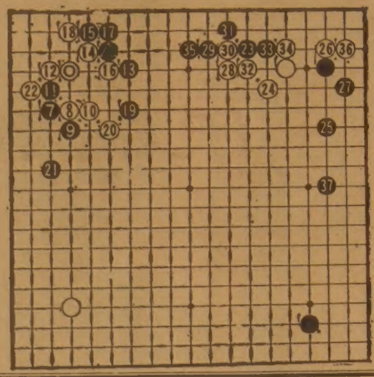
이날 식에는 盧泰愚체육부장관, 金澔植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인사와 체육회가맹경기단체회장단등이 참석했다.

吉相鎬위원장은 현판식이 끝난후 체육회 10층강당에서 다과회를 베풀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8局 第2譜 7~37 (각5시간 덤5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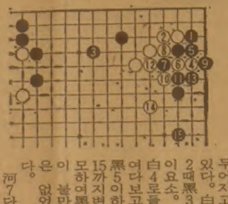
白(4段)鄭壽鉉〈2勝3敗〉
黑(7段)河燦錫〈2勝2敗〉



좌상귀 白22까지의 정석은 黑과 白을 바꿔놓고서 보면 정석으로도 흔히 생기는 형이거니와 ◎표화점에 대하여 ▲표에서 7에 양걸침한후의 수순을 아마추어 중급이라면 꽉 익혀두어야 하기때문에 재연한 것이다. 그것은 그렇고 黑23이 좌측변을 배경삼은 절호의 협공인데 이곳에 앞굿은 협이 생겨났다.

우선 白24. 鄭4단은 작전의 갈림길에서 이것저것 5분간 생각한 끝에 이곳은 원래 24로 26에 붙이는 정석도 무방했고 또 26은 직접 28자리로 어깨를 짚는수도 무방했다. 그런데 이때 黑27이 묘한수. 이수는 36에 젖히는 참고도 黑1도 보통이다.

黑27 희한한 응수



참고도 黑1로 두어지고 있다. 白2때 黑3이 요소. 白4로 보고 여다 黑5이하 15까지 변화하여 모하여 불만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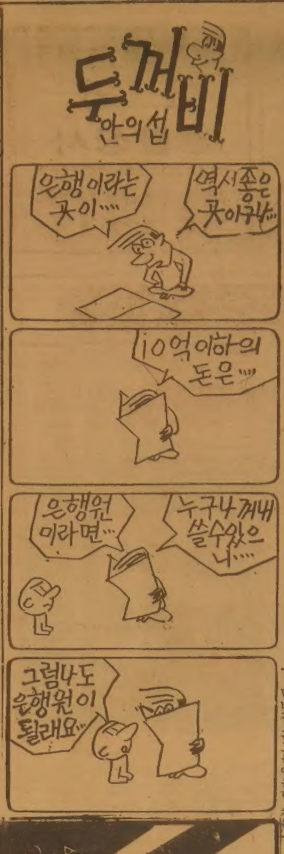
河7단은 黑27을 두더니 싱긋하고 웃었다. 임기의 수법이 자랑거리라는 뜻? 어쨌든 黑27은 보기드문 수였다. 그제야 白28. 직접 36에 뻗는것은 어떤가 생각되지만 白36, 黑37까지 피차간에 불만이 없는 결과라고한다.【一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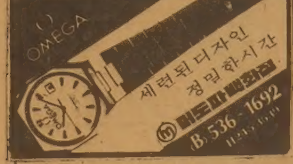
대통령盃 고교야구 24팀參加 내일개막

◇대통령배 고교야구 1·2회전대진

대구고, 강릉고, 광주상, 동대문상, 신일고, 심석종고, 포철공고, 배재고, 부산고, 군산상, 동산고, 북일고, 경북고, 광주일고, 대전고, 춘천고, 세광고, 휘문고, 충암고, 인천고, 경남고, 전주고, 마산상, 중앙고

고교야구 금년시즌 첫 타이틀이 걸린 제16회 대통령배 대회가 26일 서울운동장에서 개막된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우승팀 群山商高를 비롯한 24개 전국시도대표팀들이 출전, 녹·아웃 시스템으로 패권을겨루게된다.





中國人 「藥物강도」 2人組검거 女암달러商 털어

23일 상오11시30분께 서울中區會賢洞1街195 암달러상 金영자씨(55·여)집에서 중국인 徐建榮씨(29·香港九龍市上海街18호)와 鄭國圭씨(香港英皇島1―18) 등 2명이 金씨의 목을 조른 뒤 금고속에서 한화 50만원을 뺏어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金씨에의하면 이날 중국청년 2명이 會賢洞달러골목에 찾아와 『홍콩돈 5백달러를 바꾸겠다』고 말해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방안에 들어서자 이중 한명이 뒤에서 목을 조르고 벽에는 약물을 뿌려 실신케한뒤 금고안에있던 현금50만원을 털어 달아났다는 것.

이들은 범행을한뒤 달아났는데 鄭은 현장부근에서, 徐는 묵고있던 프린스호텔703호실에서 각각 경찰에 붙잡혔다.

流星의 賦

고독한 英雄 ㉒

<367>

李炳注作 李友範畫

신분의 피는 계남의 마음을 솟깃하게 만들었다. 계남이 알고 있는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는 나이 20세를 조금 지났을 정도의 미장부(美丈夫)로서 구김살이라곤 전혀 없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일본의 기록도 그렇게 나와 있다. 수길은 우희다가 어렸을 땐 한시 반시도 자기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수길은 아무리 우울할 때도 우희다에게만은 불쾌한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우희다가 영리한 말을 하면 더라도 하면

『하찌로오(八郞)가 말씀을 하셨구만』

하고 기뻐했다. 하찌로오란 우희다의 아명이다.

우희다는 용감하기도 했고 무공(武功)도 있었다. 13세때 종사위근위중장(從四位近衛中將), 구주정벌(九州征伐)에 참주었고, 사국정벌(四國征伐)이란 벼슬을 종군시켜선 종삼위참의(從三位參議)에 임명했다. 우의란 당명(唐名)으로선 재상(宰相)이다. 이때 우희다의 나이는 15세. 어느날 수길은 우희다를 불러

『히데요리(수길의 실자)가 15세가 될때까지 어떻게라도 살고 싶지만 아마 가망이 없을것 같다. 내가 죽고나거든 내가 고아였던 너를 보살펴 준것처럼 그놈을 보살펴달라』

고 부탁했다. 우희다는 대답도 없이 여느때 같지 않게 섰던 열풍을 하고 있었다.

『왜 가만 있는가』

수길이 따졌다. 우희다가 답했다.

『그건 당연한 일이온데 새삼스럽게 물으시는게 마음이 언짢습니다』

『그랬군 그랬군』

하면서도 수길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자네의 성실을 알겠다만 지금의 태도는 옳지않다. 자칫 오해를 살 염려가 있다. 영주(領主)라는 자

의 일거수 일투족이 정치(政治)이니라. 정치란 권사간모(權詐奸謀)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성실을 남에게 전하는 술법(術法)임을 알아라. 이제 방금 나 조차도 너의 성실을 의심할뻔 했다. 그런 결함은 곧 고쳐야 하느니라』

긴데, 계남이 일본에서 그와 동석했을 때 한 말을 상기했다.

『수차(秀次)가 홍콩이 일본에 남아있길 간청하는 모양이요. 그런 일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일 남아있게 될 형편이면 그땐 수차 옆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本城)인 오까야마(岡山)에 가있도록 하시오. 수차의 성격 때문에 후일…』

우희다는 뒷말을 이렇게 흐렸다. 우희다는 무참한 최후를 맞게될 수차의 운명을 그때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일들을 상기하며

(지금 내가 그를 초빙하면 응해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만일 응해만 준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를 인질로 해놓고 풍신수길로 하여금 병(兵)을 철수시키는 명령을 내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계남은 우희다를 만날 수 있을 경우 할 말을 앞질러 간추려보는 마음으로 되기도 했다.

(우희다공, 당신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 와서 이룩을 본것이 무엇이요. 피차 수많은 생명을 잃었지 않았소. 우리나라를 도탄의 늪 속으로 몰아넣지 않았소. 당신들의 죄상은 참으로 용서할 수 없구료. 앞으로 이 전쟁을 계속하지를 참이오? 당신은 나의 인질이 되어줘야 하겠소…)

삼복식품만이 자랑하는 품목

⊙일본서 방금 도착한	●사보로라면 (30개)	$17.95	$15.95
⊙길제	●덴마이 라면 (30개)	$17.95	$13.95
⊙햇김 (100장)		$15.95	$11.95
⊙맛좋은 냉면 (5인분)		$ 2.99	$ 2.09
(2인분)		$ 1.09	$ .79
⊙마른 미역		$ 4.95	$ 1.50
⊙동태전감		$ 1.99	$ .99
⊙삼 치		$ 2.99	$ 1.99
⊙이면수		$ 2.99	$ 1.99
⊙물오징어 특대(特大)		$ 1.99	$ 1.49

그외 산나물, 고비, 고사리, 봄철의 구미를 돋구는 여러가지 밑반찬이 있읍니다.

※성경, 찬송가 책등을 드디어 판매개시

※월간잡지—주부생활, 신동아, 주간여성등 다량입하.

※흥미있고 새로운 비데오·테잎을 $5에 빌려 드립니다.

이외 쌀을 비롯한 50여가지 Sale품목이 있음.
이상 품목은 매진될 때까지 판매함.

삼 복 식 품

2437 FINCH AVE. W. 743—8270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약 국

돈 밀 약 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전화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 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장 의 사

장 의 사 (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연정 태권도장
1065 St. Clair W.
전화 : 652-0000, 정 영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전화 : 746-6962 (Mr. Lee) 페인트·월페이퍼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귀

구독신청(월~토) ☎ : 533-2361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743-0752 서 춘 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광고문의 533-236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분. 11:00 p.m~7:00 a.m(Midnight Full Time) 8:00 a.m~4:00 p.m(Sunday Only)
Rexdale×Kipling 전화 : 743-3822

다운타운에 거주하시는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함).(현찰지불) 전화 : 533-7759 Mr. 박
지렁이 잡으러가는 지역에 좋은 농장이 많음

씨알 한국인 여름학교
동쪽과 미시사가에서 운전하실 분 두분 구함
영어, 수학과 또는 운동코치를 겸하므로 Full Time Job이 되겠으며 자필이력서를 150 Madison Ave. 로 보내주십시요. (주당: $180)

Juice Bar에서(주방)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영어 못 하셔도 관계없음
전화 : 438-0403 6시이후

Gas Attendant구함
전화 : 782-6311 (Mr. Lee)

입주하셔서 아기들 (4살, 1살)보아주실분 구함.
특별히 우대해 드리겠읍니다.(Jane+Weston)
전화 : 447-1460 (세시이후 연락바람)

일본식당에서 밤에 접시닦으실 분 구함. 월.화.수(오후4시~밤11시) 오후2시지나서 전화해 주시기 바람
전화 : 421-6016 (Masuda)

입주하셔서 애기(2살반) 봐주실분 구함
(주 5일 화~토요일)
전화 : 536-5914 (9시 이후) 783-0683 (Mrs. 하)

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파트타임)
미시사가 Lorne Park 지역
전화 : 278-8101, 822-4179

Store Manager 구함
월 $2,500 이상 보장. 몬트리올지역. 유학생도 가함.
전화 : 932-7775, 524-7775

꼭히 서부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지렁이잡이에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매주 금요일지불함)
전화 : 656-8937 (Annagickopoulos)

지렁이 (Weston & Finch 지역)
전화 : 741-2551

남자 주방 헬퍼와 여자 웨이트레스 구함.
628 BLOOR ST. W.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롬), 531-0773(김)

1) 배우실 분
컴퓨터식자 · 사진식자 (한글타자 경험자면 더 환영)
2) 여름방학동안 Full Time 일할 학생구함.(24세 미만)
(6월부터 8월까지)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1

남·녀 캐셔나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8138 Mr. 리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
이틀마다 지불함. 영어로 문의 바람.
전화 : 534-8121 Dennis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운서
653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매매및 양도

사정상 급매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Milk Store)
Whitby & Oshawa 전화 : 282-7596(Mr. 황)

Variety Store 급매. 가정사정으로 인해 급매 코저함.
Rent : $350. 리스 : 10년. 주매상 : $2,500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음. 전화 : 757-6458

자개문갑, 애기 3층장
전화 : 661-4581

컴퓨터식자기 운영으로 인해 과거에 사용하던 사진식자기(SAKEN SPICA-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533-2364 Mrs. 김

BIBLE STORY (전 10권) Set $240.-
전화 : 769-4366 (오후 6시이후)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주매상 5천불+4천(티켓), Asking $29,900
렌트 $400, 6년리스, 800 sq.ft(스넥비포함)
위치 : 오샤와(Oshawa) 주인이 유럽으로 떠나기 때문에 급매 원함
Bagot Realty Inc, Realtor
전화 : 1-579-4010(B) 1-683-8154 (after hours)
Call Frank Magnus

아파트 4채가 있는 집수리 끝낸 건물팝니다.(서쪽끝) 아스킹 : $199,900
전화 : 465-2073 오전 10:00 - 밤12:00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MODERN CLOTHING STORE FOR SALE
중앙지역,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전화 : 465-2073 10:00a.m.-12:00p.m.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1. 좋은자리에 새로 OPEN하는 DONUTS SHOP
현찰 $40,000 요구 리스: 20년 Rent: $2,300
아스킹 : $140,000
2. 주매상 $6,500의 DONUTS SHOP
Long Lease,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30,000
3. 주매상 $8,000의 DONUTS SHOP
Downpayment : $100,000 아스킹 : $29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가게달린 빌딩 매매〉
경쟁없는 지역임. (칼레도니아 × 에그린톤)
2층에는 3베드룸 아파트와 2개의 부엌
큰 리빙룸과 큰 지하실
CASA 복덕방 Peter Chung
(B) 636-1504 (R) 635-8971
※영어로 문의하십시요

각종보석 인벤토리 SALE
세번씩 보석디자인상을 받은바있는 바루주·타바키안씨(Varouj·Tabakian)가 처음으로 Public에게 Open하며 최저가격으로 봉사할 예정임.
107 Church ST. #400
Call "Varouj(바루쥬)" 362-0507
Open Hour : 10 : 00A·M - 6 : 00P·M

CN Tower에 가까이 있는 큰 주차장 딸린 식당(Tavern)매매
좌석 : 100석이상, 아스킹 : $180,000, Call Jim 596-6706
영어에 능한분이 연락주시기 바람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3 Bed Room 건물딸린 Variety Store 급매

Hamilton Downtown Busy area,
주매상 : $4,200~$4,500 Extra 순수입 : $900~$1,200(월)
Ask Mr. Kim 전화 : 1-525-2115

성업중인 식당(Tavern)급매(L.L.B.O.있음)
리스: 18년, 주매상: $10,000이상,
좌석: 150(1층), 218(Banquet Hall)
아스킹 프라이스: $300,000 (Cash일 경우 $250,000)
Downpayment : $150,000 이상 요구
위치: Birchmount와 남쪽 Eglinton 전화 : 222-7494
(12:00-2:00의 점심시간은 피해서 해주실 것)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몬트리얼에 있는 맥주와 포도주도 파는 그로서리 스토아
년 매상 : $235,000 아스킹 : $39,000+스탁
전화 : 1-514-932-6046(Mr.Kim)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콘도미니움 2BedRoom 세놓음(월 $500)
5월1일 입주가능, Islington×F inch
전화 : 745-4347

PIZZA STORE 매매 (London, Ont.)
주매상 : $2,000이상, 영업시간 : 오후4시~새벽1시까지
전화 : 1-519-681-7631(B) 오후 4시이후 연락바람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0 +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Gladstone코너: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좋은 위치에 모든 라이센스 갖추고 있는 식당급매
좌석 : 180 (Banquet Room은 따로 있음)
주매상 : $10,000~$12,000, 렌트 : $850(Mon.)
Owner will take back mortgage.
Asking : $250,000
Call Joe. 787-0491

〈매매 또는 렌트〉
타 사업관계로 로타리오머신이있는 스토아와 2베드룸 급매
주매상 $3,500 좋은조건에 양도하겠음. 64 Kingston Road.

비데오 아케이드 쎄일
15대 머신 담배 Refreshment의 Licence를 지님
전화 : 266-9770

믿고 투자할수 있는 좋은기회!
급성장하는 지역의Pharmacy for sale with building.
위치: On Weston Rd. 전화 : 781-2560(Mr. Balin)

Kingston Rd. 와 Victoria Park Corner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전화 : 698-0844 언제든지 연락요망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Hamilton지역)
주매상: $4,500. 아스킹: $45,000+스탁. 리스: 7년+10년(옵션)
리스: 7년+10년(옵션) 전화 : 1-388-4825 (Mr. 유)

★바쁜 쇼핑·몰안의 Food Store
★3개의 상점과 2개의 3BedRoom Apts와
3개의 (BedRoom Apts가 있는 2층 빌딩
Queen St. W. 에 위치(Dennis or Sam)
전화 : 534-3089 or 466-9609

가정 형편상 급매
2층에 3베드룸과 뒷뜰에는 넓은 정원이 있읍니다. 가게달린 건물임.
$15,000 다운페이.
전화 : 242-3873 Miss. 오

Bloor 와 Christie에 위치한 식당(Tavern) 급매
L . A . B . O 있음. 리스 : 15년.
좌석 : 100석 (Banquet Room : 200석)
자세한것은 Peter에게 문의 바람.
전화 : 656-0011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렌트 위치:20 Mobile Dr(한인회관) 크기:1)3.6m×3.8m 2)2.6m×4.4m 위의 방이 같이옆에 위치해서 있으며 함께 또는 각기 임대 할수도 있음. 전화 : 755-9288

단독 또는 공동으로 렌트 하실분
Young St.(로렌스×욕·밀 중간지점)
전화 : 481-3677 Frank

하우스 렌트

방세놓읍니다.
◉다운타운지역 (Church × Dundas)
◉St.Clair × Weston 전화 : 763-3289

1 BedRoom & 2 BedRoom Apt.
College & Ossington Area.
$350-$450(M) 전화 : 531-6183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성)
전화:633-7892(R)497-8900(B)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482-0166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싸우나 설치, 진열장
전화: 676-1173. 769-9468 찬장등 가구제작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VACUUM CLEANER 출장수리
카페트 CLEANER & SHAMPOOER
전화 : 881-4915 Mr. 조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